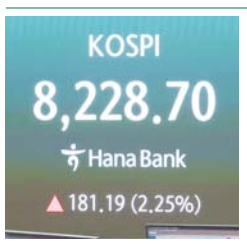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metroseoul.co.kr

metro®

제5920호 2026년 5월 28일 목요일



"예금보다 주식" 8000피가 바꾼 韓 자산배분 공식

04

Economy

코스피 8228.70 (+181.19)

코스닥 1133.13 (-39.39)

금리(국고채 3년) 3.711 (+0.047)

환율(원·달러) 1502.10 (-2.20) 〈27일〉

노사갈등 일단은 봉합 주주단체 法대응 예고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약 조인식
투표 찬성률 74% 합의안 '가결'
노조간 표심 극명 '균열'의 조짐
DS 영업익 10.5% 성과급 신설
DS 최대 6억, DX 600만원 수준

글로벌 반도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 삼성전자의 2026년 임금협상이 마무리되면서 반년 가까이 이어진 노사 갈등이 일단 봉합됐다. 그러나 사내 노조 간 표심이 극명하게 갈린데 이어 주주단체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27일 삼성전자는 경기 용인시 기흥 사업장 내 'The UniverSE'에서 사측과 노동조합 공동교섭단간의 임금협약 조인식을 진행했다. 여명구·김형로 부사장과 초기업노조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김재원 정책기획국장 등이 참석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은 이날 재적 조합원 6만5593명 중 6만261명이 참여한 찬반투표에서 투표율 95.5%, 찬성률 73.7%로 잠정합의안이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합의안의 핵심은 DS부문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 신설이다. DS부문 메모리사업부 직원 기준 세전 최대 6억원의 자사주 보상이 예상되는 반면 DX부문은 600만원 수준으로 부문 간 격차가 최대 100배에 달한다. 성과급은 전액 자사주로 지급되며 3년 분할 매각 제한이 적용된다. 2026~2028년은 DS부문 영업이익 연 200조원, 2029~2035년은 연 100조원을 달성해야만 지급된다.

합의안에 대해 노조별 온도차는 뚜렷했다. 초기업노조는 80.6%가 찬성한 반면 전삼노는 찬성률이 21%에 그쳤다. DS부문 중심의 초기업노조와 DX부문 중심의 전삼노 간 표심이 정반대로 갈리면서 사업부 간 내부 균열이 수치로 확인됐다.

이에 노태문 DX부문장 사장은 이날 임직원에게 사내 메시지를 보내 "최근 임금협상 과정과 그 결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달래기에 나섰다.

삼성전자 사장단도 이날 향후 5년간 총 5조원을 조성해 협력업체 동반 성장, 산업재해기금 조성, AI 인재 육성 등 상생 생태계 구축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여명구 부사장은 "노사가 한마음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고 최승호 위원장은 직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노사가 합의에 도장을 찍었지만 법적 분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주주단체가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섰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이날 "주총 결의 없이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명문화하면 법률상 효력이 없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사회가 합의안을 비준할 경우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예고했다. /구남영·차현정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 /뉴시스

"내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 하세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이틀 앞둔 27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작업자들이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뉴시스

GC녹십자, 美 관계사 매각 2.2조 '잭 팟'

美 빅파마 '일라이 일리' 백신 확대
'큐레보'서 위탁생산… 로열티 확보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 국내 제약 기업의 신약 개발이 홈런을 터뜨렸다. 미국 빅파마 일라이 릴리가 백신 영역으로 차세대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그 핵심 파이프라인으로 GC녹십자의 미국 관계사 큐레보를 낙점하면서다.

이번 큐레보 매각으로 GC녹십자는 당장 오는 8월에만 300억원이 넘는 현금을 쥐게 돼 하반기 수익 성장에 파란불을 켰다. 특히 자산을 통째로 넘기는 단순 투자 회수와 달리, 큐레보를 통해 개발하고 있는 백신에 대한 위탁생산(CMO)과 로열티를 확보하며 실속을 챙겼다. 플랫폼 기술만 넘겨주는 껍데기 매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 마일스톤 유입'과 '릴리의 글로벌 마케팅 파워'를 결합해 K백신의 가치를 극대화한다.

27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GC녹십자는 일라이 릴리에 GC녹십자 미국 관계사 '큐레보' 발행 주식 전량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규모는 총 15억 달러(약 2조2000억원)에 달한다. 릴리는 큐레보를 인수하고 큐레보의 대상포진 백신 후보물질 'CRV-101(성분명: 아메조스바테인)'의 글로벌 권리를 독점한다.

이와 관련 현재 큐레보 지분 20.3%를 보유하고 있는 GC녹십자는 거래 종결과 동시에 지분율에 비례한 확정 계약금을 받는다. 올해 8월 수령하는 확정 계약금 규모는 약 3066억원이다. 이중 2847억원은 바로 수령하며 219억은 추가 조건 충족 후 수령한다. 당기순이익에 반영될 예정으로 GC녹십자는 재무 구조 개선 및 실적 개선 기반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후속 임상 및 상업화 문턱을 넘을 때마다 마일스톤 분배금만 약 1533억원 수준이다.

생산 기지를 통한 캐시카우도 창출한다. GC녹십자는 지난해 10월 큐레보와 맺은 CRV-101 상업화 이후 제품 공급을 위한 위탁생산(CMO) 계약을 이번 릴리 매각 후에도 이행한다. 상업 물량 일부의 완제의약품(DP) 공정을 국내 충북 오창 공장에서 맡는다.

한편, 릴리는 큐레보를 포함해 림마테크 바이오로직스, 백신 컴퍼니 등 백신 전문 기업 3곳을 총 38억3000만 달러(약 5조8000억원)에 연쇄 인수한다. 릴리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백신 시장에 투입함으로써 예방 중심의 미래 의료 시장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각종 바이러스 감염, 항생제 내성 등으로 인한 발병에 앞서 질병에 근본적으로 접근한다. 실제로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바이오의약품 평가를 담당했던 피터 마크스 박사를 감염병 책임자로 영입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CRV-101의 경우에도 우수한 임상 데이터가 경쟁력에 뒷받침된다. CRV-101은 면역증강제를 활용해 유전자 재조합 방식으로 개발한 프리미엄 대상포진 백신 후보물질이다. 〈4면에 계속〉

/이청하 기자 mlee236@

국민 여러분께 말씀 올립니다.

삼성전자의 '임금 및 단체협약'이 노동조합의 찬반투표가 가결됨으로써 최종 타결됐습니다.

국민과 주주, 고객,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정부의 헌신적인 지원 노력에 깊이 감사드리며,
그동안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는 '사업보국'과 '인재제일'이라는 삼성의 경영철학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겸허한 자세로 노사관계는 물론 경영 전반을 깊이 성찰하겠습니다.

끊임없는 기술 혁신과 과감한 투자로 미래를 대비하여
대한민국 경제의 흔들림 없는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의 성장과 성과가 저희 임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선순환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도 더 강화하겠습니다.

향후 5년간, 총 5조 원을 조성하여
'상생 및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미래 인재 육성'에 투자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2, 3차 중심의 중소 협력사 지원과 산업재해기금 조성,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포용적 금융 확대, AI 인재 육성을 위한 산학협력, 그리고 청소년 교육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여 방식은 이사회와 준법감시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노동조합을 포함한 임직원들도 회사의 이런 결정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나가야 할지,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를 생각하며 보다 근본적인 고민도 해나가겠습니다.

삼성 임직원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입니다.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삼성인임을 자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끝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변함없는 사랑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삼성전자 사장단 일동

K-기업, 수소 기술실증·인프라 투자… 글로벌 시장 정조준

포스코홀딩스 SOEC 생산 실증
현대차그룹 수요·생산 연계 사업
KICT 지하형 수소 저장시설 구축

액체수소 공급 인프라 건설 기술개발 사업 실증지 조감도. /현대건설

국내 수소산업이 수소차·연료전지 등 활용 분야 중심에서 생산과 저장·운송 인프라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 그동안 국내 수소 R&D와 정부 지원이 활용 분야에 집중됐다면,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생산·저장 분야의 기술 실증과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6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소 생산·저장 분야 혁신 기술에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포스코홀딩스 컨소시엄은 전남 영광에 100㎾급 고체산화물 수전해기(SOEC)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산 실증에 나선다. SOEC는 고온 증기에서 수소를 분리하는 기술로, 기존 수전해 방식보다 전력 소모가 적고 제철소 폐열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포스코는 이를 통해 저가 수소 생산 기반을 검증하고 향후 수소환원제철 전환 가능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저장 인프라 실증도 병행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컨소시엄은 경기 평택 한국청정수소진흥연구원 부지에 국내 최초로 수소 저장용기와 연료전지 설비를 지하에 설치하는 지하형 수소 저장시설을 구축한다. 지상 시설을 둘러싼 안전 우려와 입지 갈등을 줄이기 위한 시도다.

액체수소 저장·운송 인프라는 현대건설이 맡고 있다. 현대건설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책과제 주관사로 선정돼 평저형 액체수소 저장탱크와 적하역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오는 2029년까지 200㎥급 탱크 실증을 마친 뒤 4000㎥급, 5만㎥급 대형 저장 시스템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종합상사 이토추와 최근 체결한 수소에너지 전환 사업 설계·조달·시공(EPC) 협력은 해외 수소 공급망 참여를 넓히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같은 움직임은 활용 분야에 치우쳤던 국내 수소산업 구조를 보완하려는 흐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0여년간 국내 수소 R&D와 정부 지원은 수소차와 발전용 연료전지 등 활용 분야에 집중돼 왔다. 반면 생산과 저장·운송 기술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유럽이 수전해 기술을 주도해온 가운데 최근 중국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추격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아직 기술 격차를 좁혀가는 단계라는 평가다.

수요와 생산을 묶는 사업 모델도 추진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새만금에 태양광 발전설비와 200MW급 수전해 플랜트를 구축해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전주공장에서 생산하는 수소버스·트럭 연료와 산업용 전력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생산 인프라와 자사 수요처를 연계해 초기 투자 리스크를 낮추겠다는 전략이다.

박석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료전지연구실 교수는 "국내 기업들은 활용 분야에서는 강점을 갖고 있지만 생산 분야는 아직 해외 기술을 도입하거나 추격하는 단계에 가깝다"며 "결국 수소 가격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럽은 중국산 저가 수전해 기술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기술 육성에 나서고 있고, 중동은 석유를 대체할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수소 생산 확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도 글로벌 공급망 구축 사업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혜온 기자
dhaledhale@metroseoul.co.kr

정부, 국가발전전략 재수립
"주권자인 국민이 미래 설계"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
'비전 2030' 계승… 대국민 공모 진행

김민석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2045 전략수립위원회 출범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기후위기와 인구구조 변화 등에 맞서, 국가 차원에서 대응책·발전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추진체계가 닻을 올렸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연내 최종 발표를 목표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의 수립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 필요한 세부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최상위 기구 역할을 맡게 된다.

김 총리가 위원장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각각 부위원장을 맡는다. 또 재정경제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등 각 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날 열린 1차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대한민국 2045 국가발전전략 수립 추진방향 및 대국민 소통계획, 국민소통단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수립된 최초의 장기종합전략인 '비전 2030'을 발전적으로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년 만에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중장기 전략을 새로 도출해 낸다는 방침이다.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목표 시계로 설정했다. 대한민국의 미래상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한 세대 앞의 미래 전략을 설계할 계획이다.

이번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은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미래를 설계하고 함께 만들어 간다는 점에 중점을 둔다.

아울러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의 명칭 및 슬로건, 정책 아이디어, 기타 자유의견 등을 수렴하기 위한 대국민 공모도 진행 중이다. 특히 청년을 비롯한 일반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타운홀 미팅, 이해관계자 간담회, 세미나, 여론·설문조사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은 범부처 정책 우선순위와 자원배분 기준을 제시하는 최상위 정책 가이드라인으로 작동하게 된다. 향후 정부의 국정운영, 중장기·세부 계획 수립 등에 연계되도록 설계할 방침이다.

경제·사회·평화·안보·통상 등 국정운영 전 부문에 걸쳐 국민의견 수렴 결과와 연구 결과, 관계부처 핵심 추진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중기(~2030년)와 장기(2030년 이후) 관점에서 추진할 핵심 실천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다. 정책 과제는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단년도 예산에도 반영한다.

김 총리는 "이번에 수립하는 2045 전략은 향후 20년간 대한민국호를 안내하는 조타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단순히 경제 지표를 높이는 것을 넘어, 국정 전반을 아우르는 중장기 계획과 일관된 전략을 바탕으로 모든 분야에서 전 세계를 선도하는 품격 있는 선진문화국가의 모습을 그려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에게는,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년세대를 포함,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삼성發 성과급 후폭풍… '영업익 연동' 갈등 전방위 확산

최대 6억 성과급 합의 파장
삼성 내부 부문별 갈등 고조
삼성전기 노조도 12% 요구
ICT업계 보상 갈등 확산
車·조선업계 임단협도 촉각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 조합원들이 지난 5월 20일 경기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삼성전자가 '최대 6억 성과급'을 지급하는 파격 보상안에 최종 합의하면서 산업계 전반에 보상 체계 재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가 제시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조가 확산될 경우 고정비 부담 확대와 노사 갈등 심화, 미래 투자 위축에 따른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이번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 제도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기업 간 양극화는 물론 한지붕 아래에서의 갈등까지 확산될 수 있다.

현재 삼성전자는 성과급 확대의 직접적인 수혜를 입은 메모리 사업부 소속 직원들과 비메모리 사업부,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소속 직원들로 갈려진 상태다. 이 같은 분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사업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DX 부문 직원들은 소외감을 호소해 왔다. 당초 DX 부문이 주축인 삼성전자노조동행(동행노조)은 삼성전자노조 공동교섭단으로 활동했지만 비반도체 부문 직원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자 활동을 중단했다. 이번 잠정 합의안 투표에서도 투표권을 인정받지 못했다. 동행노조는 이번 합의안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까지 제기하며 법적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런 내부 갈등은 회사 전체의 경쟁력에 타격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당장 삼성 주요 계열사인 삼성전기 노조는 28일 진행되는 14차 교섭에서 영업이익의 12%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사측에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삼성전기 노조는 과반 노조가 아니라는 점에서 별도 교섭 동력이 제한적이지만 상황은 언제 뒤바뀔지 모른다. 2024년 출범 당시 20%의 조직률에서 현재 34.2%(4102명)로 증가했다. 삼성전기 노조 1800여명이 추가로 가입할 경우 과반노조의 지위 및 권한을 확보하게 된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도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카카오 노조는 성과급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지급 기준을 두고 사측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LG유플러스 노조 역시 30%대 영업이익 기반 성과급 확대를 요구하며 사측과 대치하고 있다.

다만 자동차와 조선업계는 성과급을 영업이익과 직접 연동하려는 분위기지만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는게 업계 분위기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전년도 순이익의 30% 수준 성과급 지급과 기본급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현대차 당기순이익이 10조3648억원을 기록했다. 노조 요구에 맞추면 약 3조1000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3조 1000억원은 올해 현대차가 공시한 미래 차 투자 계획(17조8000억원)의 17.5%에 해당한다. 미국과 유럽, 중국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전동화 전환과 자율주행 등 미래 먹거리 확보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과급으로 투자 재원이 사라진다면 경쟁력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HD현대중공업 노조 역시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가 성과급 기준을 구체적인 이익 비율로 요구하는 것은 과거와 비교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노조의 요구와 달리 성과급 배분은 사실상 회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며 "당장 조합원들의 배를 불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은 나빠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 사례가 향후 제조업 전체 임단협 기준으로 적용될 경우 기업이 무너지는건 한 순간이다"고 우려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IT 수출 호조에 기업심리 반등
제조업, 기준선 100 넘어섰다

5월 전산업 CBSI 98.9 기록
전월보다 4.0포인트 상승
비제조업, 운수창고 중심 개선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제품 수출 호조와 운수창고업 개선에 힘입어 기업 체감경기가 반등했다. 전산업 기업심리는 아직 기준선 100을 밑돌았지만, 제조업은 100을 웃돌며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인 수준으로 올라섰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5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및 경제심리지수'에 따르면 5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8.9로 전월보다 4.0포인트(p) 상승했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가운데 주요 지수를 활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장기평균을 기준값 100으로 두고,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이고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전산업 CBSI는 4월 94.9에서 5월 98.9로 올랐다. 다음 달 전망 CBSI도 97.6으로 전월보다 3.7p 상승했다. 중동전쟁이 이어졌지만 제조업은 반도체 등 IT제품 중심의 수출 호조가, 비제조업은 운수창고업과 도소매업 업황 개선이 영향을 미쳤다.

제조업 기업심리는 기준선을 넘어섰다. 5월 제조업 CBSI는 100.8로 전월 대비 1.7p 상승했다. 다음 달 전망도 100.3으로 2.3p 올랐다.

제조업에서는 업황과 자금사정이 상승을 이끌었다. 구성지수 기여도를 보면 업황이 1.4p, 자금사정이 1.3p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기업경기실사지수 기준으로도 제조업 업황BSI는 80으로 전월보다 6p 올랐고, 매출BSI도 93으로 6p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전기장비, 전자·영상·통신장비, 기타 기계·장비 등의 개선이 두드러졌다. 전기장비는 자동차용 배터리 생산업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늘었다. 전자·영상·통신장비는 반도체와 부품업체 실적 호조가 반영됐다. 기타 기계·장비는 반도체, 조선, 방산 등 전방산업의 수요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비제조업 심리도 큰 폭으로 개선됐다. 5월 비제조업 CBSI는 97.5로 전월보다 5.4p 상승했다. 다음 달 전망은 95.9로 4.7p 올랐다.

비제조업에서는 채산성과 업황 개선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구성지수 기여도는 채산성이 1.9p, 업황이 1.4p였다. 운수창고업은 외항화물 운송업체의 물동량 증가와 운임 상승, 5월 초 연휴 기간 국내 여객운송 확대 영향으로 업황과 채산성이 개선됐다.

도소매업도 화학제품, 철강재, 의약품 등을 취급하는 전문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업황이 나아졌다. 연휴 기간 소비 확대도 영향을 줬다. 예술·스포츠·여가 업종은 연휴와 가정의 달 행사, 기온 상승에 따른 야외활동 증가로 수요가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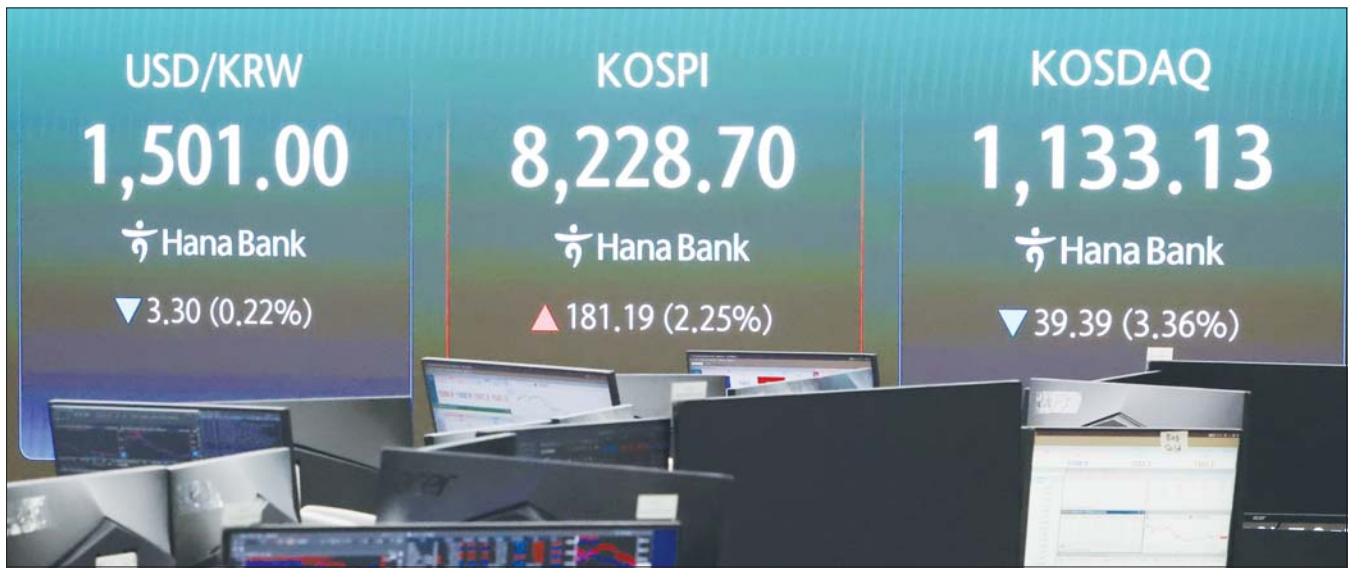
기업들이 꼽은 경영 애로사항은 여전히 비용 부담에 집중됐다. 제조업은 원자재 가격상승 비중이 32.8%로 가장 높았고, 불확실한 경제상황 17.7%, 내수부진 15.5% 순이었다. 비제조업도 원자재 가격상승이 18.0%로 가장 높았다. 불확실한 경제상황 17.7%, 내수부진 17.0%가 뒤를 이었다. /김주형 기자 gh471@

“이젠 예금보다 주식”… 8000피가 바꾼 韓 자산배분 공식

❷ 투자가 ‘미덕’ 된 시대

정기예금 1억 이하 계좌 6년 새 최저
예금·현금 비율 40%선 붕괴 가능성
코스피 8000선 넘으며 흐름 뚜렷

투자자 예탁금 사상 첫 130조 돌파
신용융자 잔고 36조2548억으로 늘어



27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8047.51)보다 181.19포인트(2.25%) 오른 8228.70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1172.52)보다 39.39포인트(3.36%) 내린 1133.13에 거래를 종료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504.3원)보다 3.1원 내린 1501.2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뉴시스

“주식하면 패가망신”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 온 말이다. 목돈은 은행 예금에 묻어두는 것이 미덕이었고, 은행에만 돈을 맡기는 ‘예금 바보’라는 말까지 나왔던 나라다. 그랬던 한국 투자자들이 달라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가 보유한 금융자산 가운데 예금·현금 비중이 지난해 43%로 떨어졌다. 이대로면 올해 안에 40%선도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저축 중심이던 한국 가계의 자산 배분 공식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다.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시절엔 현금을 쥐고 있는 게 합리적이었다. 하지만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계산식이 달라져야 한다. 가만히 두면 돈의 실질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 환경에선 ‘안전하다’고 믿었던 예금이 사실상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된다. 특히 코스피가 8000을 넘어 1만 시대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투자가 미덕’이 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 예금에서 증시로…시중자금과 빚투가 동시에 몰린다

‘불장’에 증시로 자금이 쏠리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시중은행 정기예금 가운데 잔액 1억원 이하 계좌 수는 2162만 9000좌로 6년 반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해당 예금 총액도 299조 709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2% 감소했다. 개인 투자자 자금이 예금에서 빠져나와 주식 등 투자로 이동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한은에 따르면 가계 금융자산에서 현금·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약 45%대 중반에서 2024년 46% 안팎까지

신용융자 잔액 50대 이상 비중 62%
은퇴 자금·예금성 자금까지 유입

0~9세 계좌개설, 4개월 새 2배↑
미성년자 계좌 평균 잔액 1000만원

상승하며 정점을 형성했다. 그러나 불장이 시작된 이후인 지난해엔 약 43% 수준으로 내려오며 감소 전환했다. 불과 1년 사이 3% 포인트 이상 낮아진 것으로, 주식·펀드 등 위험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근에는 40% 붕괴가 시간문제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지난 3월 통화량이 단기 금융상품과 기업 예금을 중심으로 18조원 넘게 늘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평균 광의 통화량(M2 기준·평잔)은 4132조 1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8조 5000억원(0.4%)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증시 활황으로 단기 대기성 자금이 불어나며 머니마켓펀드(MMF)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흐름은 코스피 7000선에 이어 8000선을 넘어서면서 더욱 뚜렷해졌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코스피가 7000선을 기록한 지난 6일 기준으로 주식 투자 대기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은 사상 첫 130조원(130조 7433억원)을 넘어섰다. 사상 첫 8000선(종가 기준)을 찍은 26일에도 124조원대를 기록했다.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인 신용융자 잔고는 같은 날 36조 2548억원으로 불어났다.

5대 은행의 개인 마이너스통장 잔액도 지난 21일 기준 41조 2822억원으로 4월 말보다 1조 5000억원 증가했다.

◆ 주식투자가 ‘미덕’인 시대

서울 마포구에 사는 자영업자 김춘자씨(65)는 올해 초 강세장을 맞아 본격적인 주식 투자에 나섰다. 5년 전 부동산을 팔고 남은 돈 2억원으로 2차전지 급등주와 코스닥 소형주에 올라탔다가 50% 가량 손실을 봤던 아픔이 있어 이번 강세장에는 우량주에만 투자하겠다고 마음을 다잡았다. 반도체, 조선주를 중심으로 투자하면서 그동안 봤던 손실을 대부분 회복했다. 김씨는 가게 장사가 언제까지 잘될 것이란 보장이 없어 앞으로도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불장이 이어지면서 가계 부를 늘리는 공식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노후 자금을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노년층부터 부모가 증권 계좌를 개설해 주는 미성년자 자녀들까지 빠르게 번지고 있다. ‘팔천피(코스피 8000 포인트)’ 시대를 맞아 주식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고 투자자들은 환영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상위 10개 증권사의 연령대별 신용융자 잔액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전체 신용융자 잔액 약 27조 2000억원 가운데 50대 이상이 차지한 비중은 62.3%에 달했다. 50대 잔액은 8조 9762억원(32.9%), 60대 이상은 8조 189억원(29.4%)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은퇴자금과 예금성 자금까지 상승장에 적극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의미다.

미성년도 주식시장의 참가자가 됐다. 대신증권이 연령별 신규 계좌 개설 건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 4월 0~9세 계좌 개설 증가율은 올해 1월 대비 119.2%에 달했다. 불과 4개월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뜻이다. 30대(352.6%)와 20대(308.4%), 40대(220.8%)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10대 신규 계좌 개설 증가율은 101.1%였다. 신한투자증권도 지난 1~3월 미성년자 고객 계좌 개설 현황과 국내외 주식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미성년자 계좌 개설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72% 증가했다. 미성년자 계좌의 계좌당 평균잔액은 약 1000만원이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주력제품 ‘알리글로’ 파이프라인 고도화

›› 1면 ‘GC녹십자, 美…’서 계속

글로벌 임상 2상에서 기존 대상포진 백신인 영국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싱그릭스’와 직접 비교한 결과, 동등한 수준의 면역원성을 나타냈다. 또 피로·오한·통증 등 활동을 제한하는 부작용을 절반 이상 감소시키는 내약성이 입증됐다. 글로벌 임상 3상 진입 및 상업화를 위한 최적 용량 확정 단계에 진입해 있다.

아울러 GC녹십자는 이번 매각으로 거둔 대규모 자금을 피하주사형 면역글로불린(SCIG), 프리미엄 백신, 혁신 희귀의약품 등을 연구개발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GC녹십자는 주력 제품 ‘알리글로’의 후속 파이프라인 고도화에 속도를 낸다.

알리글로는 선천성 면역결핍증으로도 불리는 일차 면역결핍증에 사용하는 정맥투여용 면역글로불린 10% 제제다. 2024년 7월 미국 시장에 진출했고 현재는 피하주사 제형 전환으로 혁신을 이뤄낸다는 방침이다. 뇌실 투여형 헌터증후군 치료제 ‘헌터라제ICV’, 알라질 증후군 치료제 ‘리브말리액’ 등도 중장기 성장 모멘텀이다. 백신 제제로는 세계 최초 유전자재조합 탄저백신인 ‘배리트락스주’ 등을 국산 신약으로 내놓는 등 백신 자급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Shinhan
투자의 시대
고객의 성장과 함께하는
신한 新韓
신한투자증권
신한자산운용
새로운 대한민국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 신한캐피탈 신한자산운용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자산신탁 신한 DS 신한펀드파트너스 신한리츠운용 신한벤처투자 신한EZ손해보험
신한금융그룹

李 "항만·공항·철도 연결해 동남권 해양경제권 완성할 것"

제31회 바다의날 기념식 참석
"국가 생존 좌우하는 핵심 영역
물류 인프라 확충, 관광벨트 조성
YS 꿈꿨던 해양강국 도약 실현"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7일 부산 영도구에서 열린 제31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국민주권정부는 김영삼 대통령께서 꿈꿨던 해양강국 대한민국으로의 힘찬 도약을 앞당길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 해양수산대학교에서 열린 제31회 바다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유라시아와 인도·태평양을 잇는 중심축이 돼 자유로운 항행과 열린 무역 질서를 수호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996년, 김영삼 정부의 해양수산부 출범은 해운과 항만, 조선과 해양산업, 수산업의 경쟁력을 키워 우리 대한민국을 해양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다"며 "그로부터 30년이 흐른 지금, 이제 바다는 단순한 물류와 산업의 공간을 넘어 국가의 생존과 미래를 좌우하는 최전선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해양 통상 질서와 공급망이 재편되는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세계 경제의 핏줄인 바다의 안전과 주도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면서 "모두가 바다를 함께 누리고, 바다에서 함께 번영하는 새로운 해양 질서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국가적 비전을 실현하는 든든한 토대가 바로 오랜 시간 축적해 온 우리 해운·항만의 저력"이라며 "정부는 해운산업이 단순한 물류 산업이 아니라 국가의 경제와 안보를 굳건히 지탱하는 핵심 산업이라는 인식 아래 우리 해운·항만사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가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그동안 주춤했던 글로벌 해운 공급망 회복에 속도를 내 우리 손으로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해운 공급망을 새롭게 구축하겠다"며 "해운과 조선의 상생 발전 생태계 구축, 해상보험과 선박금융, 해운 서비스 산업도 폭넓게 육성하여 우리 해운산업의 기초체력을 든든하게 보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유능한 선원 양성 등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바다를 통해 세계를 잇고, 평화의 길을 열고, 공동 번영의 터전을 만드는 진정한 해양 강국의 비전을 바로 이곳,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에서 실현하겠다"며 "동남권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남부 해양수도권'으로서 더 높이, 더 멀리, 더 힘차게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은 특정 지역 개발의 문제가 아니라며 "이는 대한민국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인 동시에 해양강국의 비전을 일자리와 지역의 활력으로 직결시키는 균형성장 전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동남권은 세계 최고의 해양 거점으로 도약할 지정학적 잠재력과 역량을 품고 있다"며 "태평양과 유라시아를 잇는 거대한 관문, 세계적인 기업을 보유한 종합 산업의 거점, 대한민국 첨단 제조업의 든든한 심장, 동남권의 독보적인 역량이 바다와 함께 하나로 연결될 때 '남부 해양수도권'의 가치는 활짝 꽃피고 전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압도적인 잠재력을 바탕으로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을 가능성과 기회가 넘치는 새로운 경제권으로 연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항만, 공항, 철도, 도로가 이어지는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남해안 전체를 아우르는 해양 관광벨트를 구축해 '해양 경제권'으로 키워내고, 부산에 본격적인 해양수산부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또 "해운기업과 관련 공공기관은 물론, 입법이 완료된 해사법원을 조속히 설립하고, 국회 논의가 끝나는 대로 이미 약속드렸던 동남권 투자 공사까지 모두 집적된 해양클러스터를 신속하게 완성하겠다"고 했다.

바다의 날은 국민에게 바다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해양수산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1996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으며 올해로 31회를 맞았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李 정부는 라이브 정부가 트레이드마크"

인터뷰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출범 1년… 공개·소통 중심 국정운영
2기 키워드, 구조적 변화 통한 대전환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지난 26일 이재명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메트로경제신문〉 등 내외신 20개사와 가진 공동인터뷰를 하는 모습. /뉴스핌·이투데이

"우리 정부의 트레이드마크 중 하나는 '라이브 정부'입니다. 라이브, 생방송, 생중계, 날 것의 공개가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키워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지난 26일 이재명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메트로경제신문〉 등 내외신 20개 언론사와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가장 먼저 밝힌 '1년 간 가장 특징적이고 기억에 남는 일'이었다.

이 수석은 "처음 (대통령실에) 들어왔을 때 KTV 영상을 공개했다. 원래 공개되지 않았던 영상"이라며 "지금 촬영하는 모든 것들을 일반인들이 쓸 수 있게, 특히 소규모 매체도 쓸 수 있게 무료로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그 다음에 이뤄진 것은 양방향 브리핑 제였다. 브리핑의 전(全) 과정을 공개해, 질의응답 과정까지 모두 볼 수 있게 됐다. '공개'의 정점은 국무회의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29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국무회의는 참석자들의 입장부터 국민의례, 신임 국무위원들의 인사 및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 등 초반 일부분이 KTV 등으로 실시간 방송됐다. 지금은 민감한 외교·안보 사안 정도를 제외하고는 국무회의의 전 과정이 공개되는 경우도 있다. 지난 20일 열린 국무회의는 4시간 45분 내내 생중계되기도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때문이었다. 이 대통령은 "곳간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할 것 아니냐. 문을 열어놓고 봐야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알 수 있고, 국민들이 그 곳간을 보면서 평가도 하고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게 이 수석의 설명이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은) 이제는 열어놓고 행정하고, 열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구 트위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메시지를 내는 데 대해 이 수석은 "대통령은 (SNS 활용에) 굉장히 능하고, 리더로서 장점을 갖고 계신다"며 "참모 입장에서는 그 장점을 어떻게 잘 살려나갈 것이냐를 고민해야지, 줄여나가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의 메시지는 대부분 간결하고 분명하며, 용이해서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국무위원들이나 참모들이 불분명한 의사 표현을 했을 때 대통령께서 SNS나 인터뷰를 통해 분명한 메시지를 만들어내며 해설사 역할을 하는 경우가 꽤 있었다"며 "분명하고 간결하고 평이하게 설명해내는 '커뮤니케이터 리더'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이 대통령의 메시지 중에 여지를 남기는 내용도 있었다고 한다. 대부분의 메시지는 간결하고 쉽지만, 의제로 꺼내기 위해 의견을 유보한다는 것이다. 이 수석은 최근 이 대통령이 혐오·차별에 관련해 언급할 때도 "논의를 하자"고 했었고, 촉법소년 처벌 연령 하향도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하고 물었던 사례를 꼽았다. 최근 들어서는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메시지도 늘어나고 있다는 게 이 수석의 평가다.

이 수석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가장 전하고 싶은 정부의 메시지에 대해 "앞으로는 국민들이 '세상이 좀 더 나아졌어', '내 삶이 좀 더 좋아졌어'라고 확 느낄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그런 방법을 찾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방선거가 끝나고 2기가 시작될 텐데, 그 2기는 '대전환'으로 (기조를) 잡았다"며 "조금씩 발전시키고 나아지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구조적 변화를 통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대전환을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기의 시작은 대전환이다. 앞으로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예진 기자

민주·진보 경남지사 후보 단일화 성사

전희영 사퇴… 김경수로 합의
대통합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27일 오전 경남 하동군을 찾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가 유세차량에 올라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시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 경남지사 선거에 나선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전희영 진보당 후보가 사전투표일을 이틀 남겨놓은 27일 김경수 후보로의 단일화를 선언했다.

김경수·전희영 후보는 이날 오후 3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후보 단일화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단일화 협상을 이끌어온 경남정치개혁광장시민연대 이병하 상임공동대표, 김준형 집행위원장이 자리했다.

사전투표가 당장 29일부터 시작되는 상황임을 고려해 여론조사 없이 전 후보가 김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사퇴하는 방식이다.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광역단위에서 민주당과 진보당 단일화의 첫 사례다.

두 후보는 내란 종식·사회 대개혁을 매개로 단일화에 합의했다. 전희영 후보는 "우리는 경남에서 국민의힘을 심판하고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해 김경수 후보로의 단일화를 선언하며, 김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한다"" 밝혔다.

김경수 후보는 "우리는 내란의 비극을 낳은 낡은 정치체제를 개혁하고, 경남도민의 직접적 정치 참여와 연합정치를 통해 민주진보적 도정을 실현할 것"이라며 화답했다. 이어 "내란 청산을 위해 어려운 결단을 해 준 전희영 후보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전 후보는 사퇴 후 김경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 공동 선거운동에 나선다.

두 후보는 기자회견과 함께 공동 정책협약을 했다. 선언적·형식적 단일화를 넘어 공공의료 강화, 산업전환·노동권 보장, 농어업 지원 확대, 청년 일자리 보장, 기후정책 추진 등 경남 미래 발전에 필요한 실질적 협력을 하겠다는 약속이라고 양측이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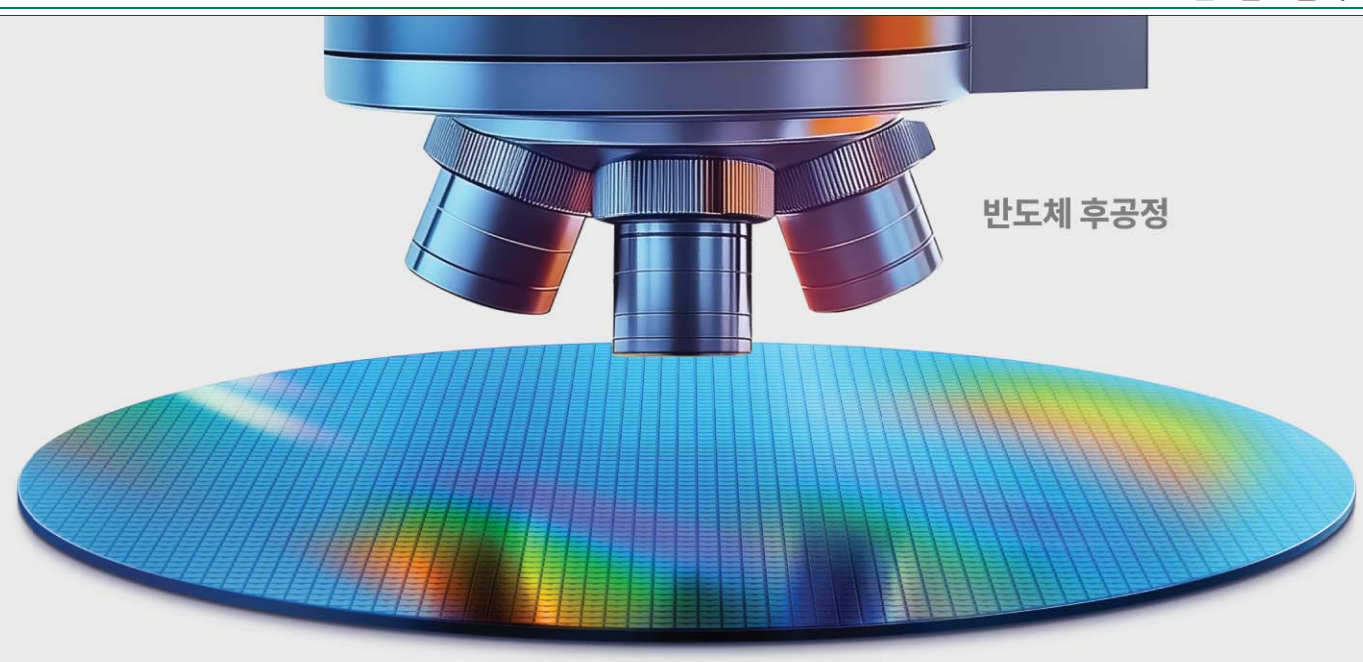
이에 단일화 과정에 참여한 경남 시민사회는 '새로운 경남 사회대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양측 공동 협약을 뒷받침한다.

전희영 후보의 사퇴로 이번 경남지사 선거는 김경수 후보와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 2파전으로 치러진다.

김경수 후보 캠프 김명섭 대변인은 "이번 단일화를 통해 김 후보는 합리적 보수에서부터 진보까지 모두 아우르는 명실공히 경남 대통합 선대위를 구성하며 경남 대통합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됐다"며 김경수·전희영 후보 단일화 의미를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중도 보수 김상권 전 교육감후보부터 최구식 전 국회의원, 국민의힘 전 도의원들, 전직 국민의힘의 기초단체장들, 오늘 진보당 전희영 후보까지 합리적 보수에서 진보까지 대통합선대위를 구성하게 됐다"며 "경남 대통합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두산테스나



HELLO
[ADVANCED]
TOMORR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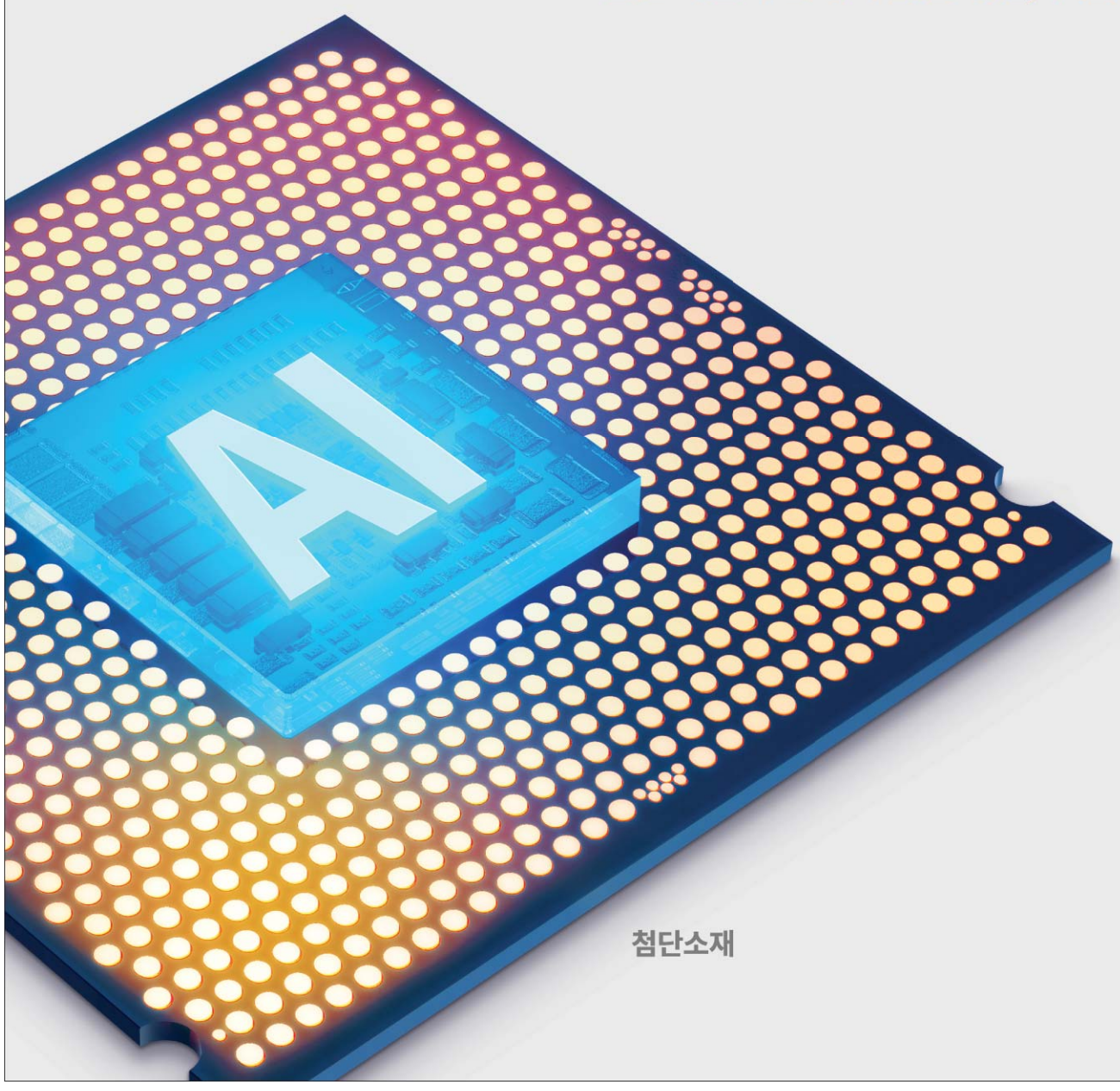
우리가 만드는 건

기술의 혁신을 넘은, 미래 산업의 가능성입니다.

두산은 첨단소재와 반도체 후공정 기술로

AI 시대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듭니다.

첨단 기술의 한계가 없는 내일, 두산이 만들어 갑니다.



첨단소재

DOOS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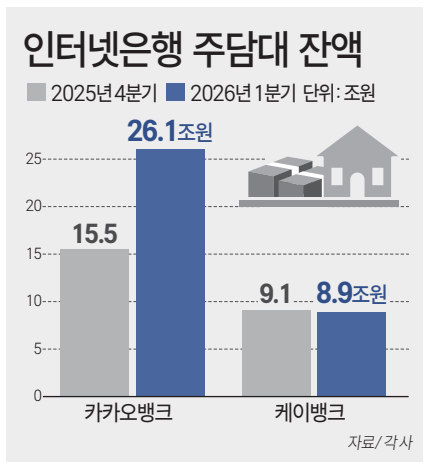
1분기 주담대 vs 신용대출 전략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하반기 '개인사업자대출' 승부수

인터넷은행 대출 실적·전략

케이뱅크 1분기 가계신용 잔액 7.1조 당기순익 332억 전년비 107% 증가
카카오뱅크 1분기 주담대 잔액 26조 연체율 0.51%, 고정이하여신 0.53%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1분기 가계대출 성장 전략이 갈렸다. 카카오뱅크는 주택담보대출을 늘린 반면 케이뱅크는 신용대출을 늘리면서 수익성을 확대한 것. 하반기에는 양사 모두 개인사업자 대출에 집중할 예정이어서 경쟁이 예상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올해 1분기 가계 신용대출 잔액은 7조1450억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135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전세대출을 포함한 주담대는 3010억원 줄어든 8조2410억원을 기록했다. 케이뱅크는 2025년 2분기부터 3분기 연속 주담대 잔액을 줄였고, 신용대출 잔액은 2025년 1분기부터 4분기 연속 늘렸다.

케이뱅크가 신용대출 확대에 나선 배경에는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수익성 강화가 필요했던 영향이 크다. 케이뱅크의 1분기 순이자손익은 1252억원으로 전분기와 견줘 3.5%,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4% 증가했다. 수익성 지표인 NIM(순이자마진)도 1.97%로 지난해 2분기부터 3개 분기 연속 상승했다.

이로인해 케이뱅크의 1분기 당기순이익도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33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1억원)보다 106.8% 증가했다.

반면 카카오뱅크는 신용대출을 낮추고 주담대를 늘렸다. 올해 1분기 신용대출 잔액은 18조2120억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710억원 감소했다. 같은기간 전세담보대출을 포함한 주담대 잔액은 26조840억원으로 같은 기간 5150억원 늘었다.

카카오뱅크의 신용대출이 줄어든 이유는 건전성관리 때문이다. 주담대는 마진이 적은 편이지만 연체되는 경우가 적다. 카카오뱅크의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1분기 기준으로 각각 작년 말과 동일한 0.51%, 0.53%를 유지했다.

한편 양사는 하반기부터 가계대출보다 개인사업자 대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과 이인영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올해 가계대출 순증 목표치로 각각 3965억원, 6673억원을 받았다. 대형은행들이 8000억~9000억원을 받은 것을 감안하면 자산 규모에 비해 목표치가 적은 편이다.

양사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늘리면서도 보증 담보비중을 높일 전망이다. 1분기 기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개인사업자 대출 중 보증·담보 대출 비중은 각각 69%, 43%로 전년 동기간 56%, 26%에 견줘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케이뱅크는 IPO를 앞두고 수익성 개선이 중요했고, 카카오뱅크는 건전성 방어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며 "하반기에는 가계대출 성장 여력이 제한적인 만큼 양사 모두 개인사업자대출 시장 공략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금융권, 생산적 금융 내재화 노력해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에너지 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금융의 역할 재설정·전략 논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의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5대 지주와 산업은행, 기업은행의 기업대출 및 투자 잔고가 늘어나며 금융권 전반의 자금흐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도 생산적 금융이 지속 추진되도록 금융권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내재화 노력을 이어가 달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은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생산적 금융협의체 4차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주요 은행지주사와 보험사 등 관계기관, 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에너지 산업의 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의 역할을 재설정하고, 향후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권대영 부위원장은 "에너지 산업은 AI(데이터센터), 탄소중립, 에너지안보의 세 축 아래 종래 전통에너지 중심의 자원·채굴산업에서 대규모 설비·인프라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며 "기술의 국산화와 공급망 관점에서도 국가 전략산업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기 투자비용 증가, 회수기간 장기화, 인프라 투자비중 확대 등에 대응해 금융권의 장기모험·인프라 자본 투자, 재정 및 민간금융과의 협업을 통한 혼합금융의 중요성도 커졌다"라며 "에너지의 지역 편중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에너지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투자도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에너지 산업변화 및 금융의 역할에 대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각 금융사들의 에너지 금융지원 관련 모범사례 및 애로사항 등을 공유해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한 혜안을 얻을 수 있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본 회의에서는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보스턴컨설팅 그룹, KB금융지주, 하나금융그룹, 농협금융지주, BNK금융지주, JB금융지주, 한국투자금융지주, 신한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교보생명, 삼성화재 등 금융기관들이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의 생산적 금융 참여 현황을 점검했으며, 향후 투자계획도 제시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무늬만 생산적금융이 되지 않도록 금융권과 정부가 생산적 금융 역량이 내재화·체계화되도록 주요 과제를 추진해나가자"라며 "오늘의 에너지 산업 논의처럼 생산적 금융 협의체가 산업과 금융을 잇는 가장 실질적인 플랫폼이 되도록 함께 노력을 이어가자"라고 당부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여신협회장, 박경훈·윤창환·이동철 '3파전'

내달 4일 면접 후 투표 진행

차기 여신금융협회장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됐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이날 제1차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입후보자 서류를 심사, 후보군(숏리스트)을 압축했다. 박경훈 전 우리금융캐피탈 대표, 윤창환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 이동철 전 KB국민카드 대표가 최종 후보군에 올랐다.

1962년생인 박경훈 전 대표는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출신의 금융권 인사다. 우리은행에서 30년간 근무하며 경력을 쌓았다. 이후에는 우리금융지주에서 경영기획총괄 부사장, 재무 부문 부사장을 역임한 뒤 우리금융캐피탈 초대 대표이사를 맡았다. 현재는 한화저축은행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윤창환 전 수석은 1961년생으로 전남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중앙대 신문방송학 석사와 동국대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월간조선 프리랜서 기자 출신으로 국회의장 정책수석과 이재명 대통령 후보 AI 정책 특보단장 등을 지낸 30년 경력의 정무 분야 인사다.

이동철 전 대표는 1961년생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KB금융그룹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금융인이다. KB생명보험 경영기획본부 부사장과 KB금융지주 전략총괄 부사장(CSO), KB국민카드 대표이사, KB금융지주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왼쪽)과 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대표가 기부금 전달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 장애인 재활·일자리 등 지원

생애주기·환경 고려 5개 사업 구성
아동·청소년에 학습보조기구 지원
특수학교 디지털학습환경 구축나서

하나금융그룹은 장애인의 건강한 사회 진출과 지속가능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통합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프로그램은 장애인의 생애주기와 생활 환경을 고려해 ▲재활 ▲교육 ▲주거복지 ▲일자리 ▲금융서비스 등 총 5개 사업 분야로 구성되었으며, 다각적인 맞춤형 통합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됐다.

우선 하나금융은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재활 및 학습 보조기구 지원 사업 기부금 전달식'을 갖고 이번 통합 지원 사업의 첫 시작을 알렸다.

이번 재활 및 학습 보조기구 지원 사업 기부금 전달을 통해 경제적 부담 등으로 적기에 보조기구를 교체하지 못하는 저소득 복지 사각지대 장애 아동·청소년 총 300명에게 맞춤형 기구를 지원한다.

기립훈련기, 보행훈련워커, 자세유지의자 등 신체활동을 돕는 재활 보조기구를 250명에게 제공하고, 시각장애인용 점자 입출력기와 립스틱·안구 마우스 등 학습 보조기구를 50명에게 전달한다. 아울러 장애 아동 재활 전문 기관 15곳에도 보행 트레이너 등의 기구를 지원해 의료 인프라를 확장할 계획이다.

또 취업 의지가 있는 발달·청각장애인 및 경계성 지능인 총 85명을 대상으로 채용 연계형 취업 교육을 진행한다.

장애특수학교의 디지털 학습환경 구축과 교사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직무 교육을 수행하는 전국 특수학교 3곳에 실제 근무환경과 유사한 '디지털 실습실'을 구축해 학생들의 기술 교육을 돕는 한편, 특수학교 교사들을 위한 전문성 강화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아울러 전국의 노후된 장애인 거주시설 20곳을 선정해 주거환경 개선 및 차량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한국자폐인사랑협회와 연계해 자폐성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일자리도 창출한다.

함영주 회장은 "장애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아동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자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권익 증진을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미래에셋생명 임직원 봉사단이 '행복한 경로당 만들기'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생명 '행복한 경로당 만들기' 봉사

노인복지 증진 일환… 임직원들 참여

미래에셋생명은 서울 마포노인종합복지관과 마포구 내 취약지역 경로당을 찾아 '함께하는 행복한 경로당 만들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부서별 봉사단을 편성해 모든 임직원이 매년 8시간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함께하는 행복한 경로당 만들기'는 경로당 어르신과 미래에셋생명 임직원 봉사단의 교류로 세대 통합과 함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진행됐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악수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과 직접 부채와 썬캡을 만들며 담소를 나누고 추억을 쌓았다.

황병욱 미래에셋생명 홍보실장은 "경로당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에 이번 봉사활동을 진행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미래에셋생명은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한다는 기업 핵심가치에 따라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보험업의 본질인 사랑을 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석화업계, 공급과잉·원가부담 허덕 'NB라텍스 가격반등' 실적변수 기대

중동사태 지속… 업황개선 난항
금호석화, NB라텍스 점유율 1위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 가능성

석유화학업계가 하반기 고가 원재료 투입과 중국발 공급과잉 부담을 동시에 안고 있는 가운데 금호석유화학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실적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NCC(납사분해설비) 중심 범용 화학사들은 중동 전쟁 이후 가격이 오른 나프타를 원재료로 투입해야 하는 만큼 제품 가격 상승 국면에서도 수익성 개선 폭이 제한될 수 있지만 금호석유화학은 니트릴 장갑 원료인 NB라텍스 수급 개선이 합성고무 부문 수익성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석유화학업계에서는 2분기까지 실적을 일부 떠받쳤던 긍정적 래깅 효과가 하반기에는 원가 부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동 전쟁 이후 급등했던 국제유가는 최근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쟁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주요 원재료인 나프타 가격도 톤당 800~90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상반기에는 전쟁 이전 확보한 저가 원재료 투입 효과가 일부 반영됐지만 하반기부터는 중동 전쟁 이후 높은 가격에 매입한 원재료 비중이 늘면서 범용 제품 중심 업체들의 스프레드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발 공급과잉까지 겹치면서 NCC 중심 업체들의 수익성 회복 폭도 제한될 수 있다.

금호석유화학도 1분기에는 원재료 가격 상승 부담을 피하지 못했다. 금호석유화학의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1조7800억원, 영업이익은 59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7%, 50.7% 감소했다. 3월 들어 고무 제품 핵심 원료인 부타디엔(BD) 가격이 급등하면서 합성고무 부문 수익성이 제한됐다.

다만 사업 구조 측면에서는 NCC 중심 범용 화학사들과 차이가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NCC를 보유하지 않고 합성고무·라텍스 등 다운스트림 제품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에틸렌 등 기초 유분을 직접 생산하는 업체들과 달리 중국발 에틸렌 공급과잉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반면 BD 등 합성고무 원재료 가격 변동과 전방 장갑·타이어 수요에 따른 제품 스프레드 변화가 실적에 직접 반영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NB라텍스 가격 반등은 하반기 실적 방어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한국무역협회 집계 기준 5월 국내 NB라텍스 수출 단가는 톤당 1705달러로 연초 대비 176% 상승했다. 미국의 중국산 의료용 니트릴 장갑 관세 인상과 글로벌 NB라텍스 공급 축소가 맞물리면서 가격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의료·산업용 니트릴 장갑 수요 확대를 바탕으로 글로벌 NB라텍스 시장이 2030년대 중반까지 연평균 5~7%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글로벌 NB라텍스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로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 가능성도 거론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고가 원재료 투입 부담과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NCC 중심 범용 화학사의 수익성 압박이 커질 수 있다"며 "금호석유화학은 NB라텍스 가격 반등과 글로벌 장갑업체 원료 수요 회복을 바탕으로 실적 방어력을 입증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슈필라움 글로우캐빈' /LG전자

LG전자, AI 모빌리티 공간 솔루션 선봬

'슈필라움 글로우캐빈' 전시

LG전자가 인공지능(AI) 가전과 모빌리티를 결합한 이동형 공간 솔루션을 앞세워 새로운 고객 경험 확대에 나선다. 차량 내부를 단순 이동 수단이 아닌 생활 공간으로 구현하며 AI홈 생태계를 차량까지 확장하는 모습이다.

LG전자는 오는 8월 말까지 '해비치 호텔앤드리조트 제주'에서 AI 모빌리티 공간 솔루션 '슈필라움'을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

독일어로 '놀이 공간'을 뜻하는 슈필라움은 기아 PV5 차량에 LG전자의 맞춤형 가전과 가구를 접목한 새로운 개념의 모빌리티 솔루션이다. 고객은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가전과 가구 종류를 자유롭게 조합해 온전한 나만의 공간으로 꾸밀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제품은 캠핑, 피크닉 등 야외 활동에 특화된 '슈필라움 글로우캐빈'이다. 차량 내부에 냉장고, 광파오븐, 와인셀러 등을 탑재해 편의성을 높였으며, 생성형 AI가 적용된 허브 'LG 씽큐 온'을 통해 음성만으로도 가전제품을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다.

LG전자는 지난해 열린 '서울모빌리티쇼'에서 기아와 모빌리티 공간 솔루션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슈필라움을 처음 공개한 바 있다. 양사는 현재 솔루션 고도화 및 상용화를 목표로 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LG전자는 지난 70년간 가전 사업을 운영하며 축적해 온 공간에 대한 이해도와 노하우에 AI 기술을 접목한 공간 솔루션을 차량을 비롯해 고객이 머무는 다양한 공간으로 확장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슈필라움'을 비롯해 모듈러 주택 '스마트코티지'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LG전자 오준환 HS CX실장은 "고객이 내 집처럼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AI 가전과 모빌리티를 결합한 '슈필라움'만의 차별화된 공간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효성重, 日 ESS 사업 순항… 640억 성과

대규모 ESS 프로젝트 연속 수주
"日 시장 기반 글로벌 레퍼런스 확대"

일본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맞춰 전력망 안정화 투자를 늘리는 가운데 효성중공업이 일본 진출 첫해부터 특고압·고압 에너지저장장치(ESS) 프로젝트를 잇달아 따내며 현지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호주 대형 ESS 수주에 이어 계통 연계 기준이 까다로운 일본 시장에서도 성과를 내면서 해외 ESS 사업의 실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효성중공업은 일본 에너지 개발업체와 약 110억원 규모의 고압 연계 ESS 설계·조달·시공(EPC)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이타, 구마모토, 야마구치, 오카야마, 미에 등 일본 5개 지역에 총 10MW·40MWh 규모 고압 ESS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효성중공업은 전체 시스템 설계와 주요 기자재 공급을 맡고 완공 이후 최장 20년간 유지보수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번 수주로 효성중공업의 일본 내 ESS 사업 실적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2월 홋카이도 시라누카 지역 48.5MW·228MWh 규모 특고압 ESS EPC 프로젝트를 수주한 데 이어 고압 ESS 계약까지 추가하면서 올해 상반기 일본 ESS 누적 수주액은 약 640억원으로 확대됐다. 국내 전력기기 업체 중 최대 규모다.

일본 ESS 시장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성장 여력이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이기로 하면서 출력 변동성을 보완할 ESS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그랜드뷰리서치는 일본 ESS 시장이 2025년 약 134억달러에서 2030년까지 연평균 34.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효성중공업은 2009년 ESS 사업에 진출한 이후 국내 ESS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24년에는 단일 기준 국내 최대 용량인 336MW 규모 ESS를 한전 부북변전소에 구축하며 대형 프로젝트 수행 역량을 입증했다.

국내 실적을 바탕으로 해외 ESS 레퍼런스도 넓혀왔다. 효성중공업은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다양한 ESS 프로젝트를 수행했으며 올해 3월에는 호주 퀸즐랜드 탕캄 지역에서 100MW·200MWh 규모 ESS EPC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효성중공업 관계자는 "기자재 안전성과 규격 기준이 엄격한 일본 시장 진출을 기반으로 글로벌 ESS 레퍼런스를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이 늘어나는 국가를 중심으로 해외 ESS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삼성重, LNG선 등 1조 규모 패키지 수주

고부가 선종 중심 수주기반 확장

삼성중공업이 동일 선사로부터 3개 선종, 5척을 패키지로 수주하며 수주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27일 버뮤다 지역 선사로부터 LNG운반선 1척, 대형가스운반선(VLGC) 2척, 원유운반선 2척 등 총 5척을 약 1조18억원에 수주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수주로 삼성중공업의 올해 누적 수주 실적은 총 27척, 54억달러(약 8조1254억원)로 늘었다. 선종별로는 LNG운반선 13척, 에탄운반선 2척, 가스운반선 4척, 컨테이너선 2척, 원유운반선 6척 등이다. LNG운반선 중심의 고부가 선종을 확보하는 동시에 가스선과 탱커 등으로 수주 기반을 넓히는 모습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선주사가 서로 다른 복수의 선종을 한 조선사에 동시에 발주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특정 선종에 국한되지 않는 삼성중공업의 종합 건조 역량과 고객 신뢰를 다시 한 번 입증한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고부가 선종은 수익성을, 표준화 선종은 생산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주 전략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유혜온 기자 dhaledhale@

LG이노텍, 차세대 반도체 기판 공개

ECTC 참가… FC-BGA 기술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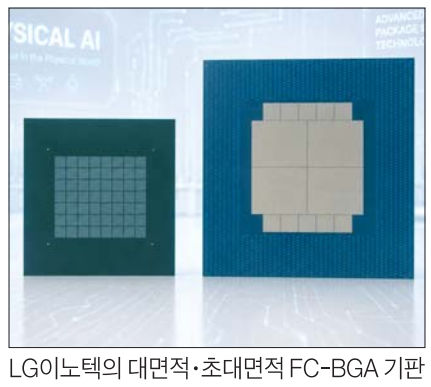
LG이노텍이 인공지능(AI) 반도체 성능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첨단 패키지 기판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대면적 FC-BGA와 초박형 통신용 기판 등 차세대 제품을 앞세워 글로벌 빅테크 고객사 확보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27일 LG이노텍에 따르면 회사는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리는 '2026 ECTC(전자부품기술학회)'에 참가해 차세대 반도체 기판 기술을 공개한다.

LG이노텍은 행사 기간 별도 전시 부스를 마련하고 글로벌 빅테크 고객사를 대상으로 가로·세로 85㎜ 크기의 대면적 FC-BGA 기판과 이보다 면적이 약 40% 큰 초대면적 FC-BGA 기판 샘플을 선보인다.

대면적 FC-BGA에는 칩 임베딩 기술도 적용됐다. 칩 임베딩은 칩을 기판 위에 실장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기판 내부에 칩을 매립하는 기술이다. 신호 이동 거리를 줄여 전원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기 저항을 약 25% 낮출 수 있다. 이를 통해 서버 전력 손실을 줄이고 전력 효율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LG이노텍은 5G 통신용 RF-SiP 기판도 함께 공개한다.



LG이노텍의 대면적·초대면적 FC-BGA 기판 샘플 제품 2종. /LG이노텍

/원관희 기자

한국앤컴퍼니그룹, AX 실행전략 공유

'엔터프라이즈 AI 서울' 참여

한국앤컴퍼니그룹은 지난 26일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엔터프라이즈 AI(인공지능) 서울 2026'에서 그룹의 AX(AI 전환) 비전을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한국앤컴퍼니그룹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 디지털전략실의 김성진 전무는 키노트와 세션 연사로 참여해 'AI가 기업의 운영을 바꾸는 방식'을 주제로 발표로 진행했다.

김 전무는 AI 에이전트와 바이브 코딩의 확산이 단순한 개발 생산성 향상을 넘어 기업의 업무수행 방식과 운영 구조 전반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 AI 에이전트와 바이브 코딩의 현실적 접근법, 전통적 산업에 미칠 영향, 실제 적용 사례, 기업 운영 변화와 남겨진 과제 등을 중심으로 기업의 실질적인 AX 실행 전략을 공유했다.

김 전무는 "AI 기술은 이제 일부 업무의 효율화를 넘어 기업 운영 방식 자체를 재설계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며 "한국앤컴퍼니그룹은 글로벌 기술 파트너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AI를 실질적 업무 성과와 연결하고, 전사 AX 실행 문화를 지속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혁신벤처업계 "서울 경제정책 1순위는 벤처·스타트업 육성"

서울시장 후보들에 제안서 전달
창업·투자·인재 등 과제 담아
글로벌 벤처허브 구축 제안
투자플랫폼·실증 개방 제시
"시정과제 반영 기대" 강조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이 지난 26일 서울 구로구에 있는 협회 이민화 라이브러리에서 진행한 정책제언 전달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벤처협회

벤처기업협회를 중심으로 한 혁신벤처업계가 서울시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벤처·스타트업 육성'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향후 서울시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창업·투자·인재·규제·공공수요 등 관련 정책을 전달했다.

여기에는 ▲글로벌 벤처·스타트업 허브 구축 ▲혁신벤처 클러스터 조성 ▲AI·딥테크 성장기반 마련 ▲서울 스케일업 투자 플랫폼 구축 ▲서울 도시문제 해결형 공공수요·실증 테스트베드 개방 ▲서울형 벤처기업 육성 조례 등 제도 기반 마련 등의 내용이 두루 포함돼 있다.

27일 벤처협회에 따르면 전날 서울 구로구에 있는 협회에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게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날 자리에는 민주당에선 정원오 후보와 박홍배 의원 등이, 벤처협회에선 송병준 회장, 이주완 수석부회장, 이용균 수석부회장, 김기혁 부회장이 그리고 혁신벤처단체협의회(혁단협)에선 김학균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유동준 한국엔젤투자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함께 했다. 협단협에는 이들 단체 외에도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가 활동하고 있다.

이에 앞서 벤처협회는 지난 22일에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캠프 소속 김선동 총괄본부장에게도 정책제안서를 전달한 바 있다.

벤처협회가 분석한 지역별 벤처기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에만 전체 벤처기업(3만8598개사)의 28.4%인 1만893개사가 있다. 서울지역 벤처기업은 소프트웨어개발(27.6%), 정보통신(15.6%), 기타서비스(15.1%) 등 첨단서비스형 벤처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업계는 서울의 산업·투자 기반을 고려할 때 서울시 창업정책은 창업지원에서 발전해 실증, 투자, 공공수요, 글로벌 스케일업이 연결되는 성장정책으로 고도화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병준 회장은 "서울시 경제정책의 최우선 아젠다는 벤처·스타트업이어야 한다"며 "서울이 'G2 서울'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과 기업이 서울에서 태어나고, 투자받고, 실증하고, 세계시장으로 성장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벤처·스타트업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청년 일자리와 AI·딥테크 시대 산업경쟁력의 핵심 주체로, 전달한 정책제안이 후보자의 공약과 향후 당선이 될 경우 서울시정 과제에 명확히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혁신벤처업계는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벤처정책 제안서'에서 지역 벤처생태계 혁신을 통한 국가균형성장도 강조했다.

제안서에 따르면 벤처기업 10곳 중 6곳은 수도권에 집중해 있는 등 지역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현재 전체 3만8000여개 벤처기업 중 서울·경기·인천에 위치한 벤처기업은 2만5000여개로 전체의 65.4%에 이른다. 특히 경기(1만2000여개)와 서울(1만1000여개)에 전체의 60% 이상이 집중해 있다. 2020년 당시만해도 수도권 벤처기업 비중은 59.9%였다. 이 수치는 62.1%(2021년)→64.8%(2022년)→65.2%(2023년)→65.5%(2024년)로 점점 늘어났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혁신기업 2題

中 광동성지회 설립해 현지 진출 확대

메인비즈협회, 혜주서 창립총회
한·중 기업인 등 50여명 참석
한국·중국기업 25개사 참여

메인비즈협회 김명진 회장(왼쪽)이 중국 광동성지회 손종수 초대 지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메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가 중국 광동성에 지회를 세우고 회원사들의 현지 진출을 추가로 지원한다.

27일 메인비즈협회에 따르면 최근 중국 광동성 혜주시 르네상스 호텔에서 '메인비즈협회 중국 광동성지회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열었다.

창립총회에는 주광저우 안동욱 부총영사, 혜주시 탕쥔 상무국장, 한중산업단지 오양지 책임서기, 중국한국인기업가협회 김성곤 이사장, 코트라 광저우무역관 이지훈 관장 등 한·중 기업인과 정부 관계자, 협회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메인비즈협회 광동성지회는 중국 경제의 핵심 거점인 선전, 광저우, 동관, 후이저우를 중심으로 광동성 전역에서 활동한다. 현재 한국기업 10개사와 중국기업 15개사 등 총 25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다.

초대 지회장에는 중국 혜주에 위치한 성지전자 혜주유한공사의 대표이자 중국 내 한인 경제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손종수 대표가 임명됐다.

김명진 메인비즈협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광동성은 글로벌 제조·첨단산업의 중심지로, 이번 지회 창립은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외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회원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실질적인 해외 협력 성과 창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메인비즈협회는 창립총회와 연계해 혜주상무국 투자설명회와 현지기업 시찰도 진행하며 중국 현지 투자환경과 산업동향을 공유하고 양국 기업 간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김승호 기자

직무발명·IP금융으로 기술혁신기업 성장 지원

이노비즈협회, IP 전략 컨퍼런스
산업·과기·법조계 400여명 참석
직무발명·IP금융 성장 해법 공유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이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직무발명과 기업성장 혁신 전략 2026' 컨퍼런스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이노비즈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가 지식재산(IP) 전략을 통한 기술혁신기업 추가 성장 모색에 나섰다.

27일 이노비즈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지식재산처와 공동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직무발명과 기업성장 혁신 전략 2026' 컨퍼런스를 전날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생성형 AI 등 디지털 기술 발전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이노비즈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직무발명제도와 IP 금융 전략을 통해 기업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위해 마련한 이날 행사에는 산업계, 과학기술계, 법조계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직무발명제도'란 종업원(연구자)의 직무상 발명을 사용자(기업 등)가 승계함에 따라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날 진행한 강연에선 특허를 활용한 자금조달·투자유치 효과부터 분쟁해결 해법까지 총망라해 기업의 스케일업에 직결되는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가치와 분쟁 대응 리스크 관리 전략 등을 공유했다.

이노비즈협회는 김용선 지식재산처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직무발명 및 국내외 핵심 IP 확보, 특허분쟁 대응 외에도 부처 간 기술평가 데이터 연계 및 토큰증권(STO) 기반의 IP 유동화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금융·행정적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김승호 기자

넥센타이어, 기아 셀토스 수출차 타이어 공급

북미·유럽 주요 시장 공급 확대
국내 이어 수출차로 범위 넓혀

넥센타이어가 올해 해외 주요 시장 판매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올해 1분기 유럽과 미국 등 해외 시장 판매 확대에 힘입어 매출과 이익 모두 증가세를 기록한데 이어 기아의 대표 소형 SUV 셀토스의 해외 수출 차량에도 타이어를 공급한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도 실적 반등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넥센타이어는 기아 '디 올 뉴 셀토스' 해외 수출 차량에도 신차용 타이어(OE)를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넥센타이어가 타이어를 공급하는 기아 셀토스는 출시 약 7년 만에 글로벌 누적 판매 200만대를 돌파하는 등 기아 SUV 중 최단 기록을 작성하고 있다.

셀토스는 지난해 24만 3849대를 해외 시장에 판매하며 스토티지에 이어 해외 판매 2위를 차지했다. 특히 2세대 신형 모델 출시와 하이브리드 추가를 통한 상품성 강화로 글로벌 소형 SUV 시장에서의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앞서 넥센타이어는 지난 3월 국내 출시 모델에 '엔프리즈 S'와 '엔페라 AU7'을 공급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북미와 유럽 등 주요 수출 시장으로 공급 범위를 넓혔다.

넥센타이어는 이번 공급을 통해 동일 차종에 시장별로 다른 제품을 공급하는 맞춤형 신차용 타이어 대응 역량을 입증했다.

넥센타이어는 북미 시장에 미국과 캐나다에 공급되는 16인치 사양에 엔프리즈 S(N 'PRIZ S)를, 독일·프랑스·네덜란드 등 유럽 시장에는 여름용 타이어로 16인치와 18인치에는 '엔페라 프리머스', 19인치에는 '엔페라 스포츠'를 각각 공급한다.

넥센타이어는 올해 KGM 무쏘, 르노 필랑트 등 국내 주요 전략 차종과 포르쉐·BMW·메르세데스-벤츠 등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에도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며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KCC글라스, 업계 첫 정품 유리 인증제 도입

유통 과정 품질관리 강화 목적

KCC글라스가 유리 유통 과정에서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정품 유리 인증 제도'를 정식 도입했다.

27일 KCC글라스에 따르면 국내 건자재 시장은 자재가 여러 중간 업체를 거쳐 현장에 납품되는 복잡한 유통 구조로 돼 있다. 특히 유리의 경우 유통 과정에서 저품질 유리가 혼입되더라도 출처 확인이 쉽지 않다.

KCC글라스는 이러한 혼입 문제를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KCC글라스의 판유리가 적용된 현장을 대상으로 정품 유리 사용을 인증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공사 시작 전 건설사로부터 인증 요청이 접수되면 KCC글라스가 현장, 가공 업체, 유리 사양, 적용 물량 등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해 예비 인증서를 발급하고 공사 완료 후 현장 실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본 인증서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특히 현장 실사 단계에서는 검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휴대용 XRF(X-Ray Fluorescence) 성분 분석기'를 활용한다.

KCC글라스의 판유리가 고유한 조성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를 통해 정품 유리 사용 여부에 대한 신속하고 정밀하게 판별할 수 있다. 회사측은 또 기술력과 품질관리 역량을 갖춘 유리 가공 기업에 회원사 자격과 인증을 부여하는 '이마스터클럽(e-MASTER Club)' 제도도 함께 운영 중이다.

KCC글라스 관계자는 "저품질 유리의 혼입을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KCC글라스의 정품 유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정품 유리 인증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AI·데이터·연계플랫폼 초월기업

28 AI INNOVATION

Leading AX Platform

온프레미스 & 클라우드 하이브리드형 시장 점유율 1등 기업

LLaMON AX통합플랫폼
- ARAG Graph RAG
- LLM 모델 최적화 및 튜닝 LLM/MLOps
- 멀티 에이전틱빌더 MCP/A2A
- Document AI
- VLM OCR Voice
- 민원상담 AI
- Physical AI

MESIM AX AI연계플래폼 시장 점유율 1위
- ESB 옵저빌리티
- MCP Gateway
- APIG Gateway
- AI연계개발 장애 Agent
- 망/SAP 연계

KLEVER 디지털트윈 휴먼플랫폼
- 자율주행 교통
- 철도 항공 드론
- 도시 산단 건설
- 레이더검지 AI영상검지
- 디지털휴먼 플랫폼

METABUILD

본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2 2사옥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4
교통자율주행 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08 | www.metabuild.co.kr
T 02.598.3327 | F 02.598.3329 | Email support@metabuild.co.kr

“신뢰 무너졌다”… 카카오 노사, 본사·계열사 공동파업 기로

임금·단체협약 교섭 2차 조정회의 결렬 시 본사·계열사 동시 파업권

최근 AI 중심 사업 재편 과정서 조직 긴장·보상문제 겹치며 표면화

서승욱 카카오 노조 지회장이 27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카카오 노사 2차 조정회의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카카오 노사가 결국 다시 노동위원회 조정 테이블에서 마주 앉았다. 이미 주요 계열사 상당수가 쟁의권을 확보한 가운데 이날 본사 협상마저 결렬될 경우 카카오 공동체 전체가 동시 파업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27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카카오 본사 노사는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과 관련한 2차 조정회의에 돌입했다. 현장에는 노조 관계자들과 사측 교섭단, 취재진이 몰리며 무거운 분위기가 이어졌다. 노동위 역시 이번 조정이 단순 임금 협상 수준을 넘어 카카오 공동체 노사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고 장시간 조정을 준비하는 모습이었다.

현재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주요 계열사 4곳은 이미 노동위 조정이 무산되며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여기에 카카오 본사까지 조정이 최종 결렬될 경우 창사 이후 처음으로 본사와 계열사가 동시에 파업권을 확보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앞서 카카오 본사를 포함한 5개 법인 노조가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 역시 모두 가결되며 내부 쟁의 절차도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보상 체계와 고용 안정 문제다. 노조는 최근 몇 년간 경영진 중심의 성과 보상 구조가 강화되는 동안 직원 대상 보상 기준은 갈수록 불투명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500만원 규모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성과급에 포함하는 방안을 두고 노사 간 충돌이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 인상안을 둘러싼 갈등도 커지는 분위기다. 노조는 일부 계열사에서 제시된 2%대 임금 인상률이 최근 물가 상승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엑스엘게임즈를 중심으로 희망퇴직과 전환배치 논란까지 겹치며 내부 반발이 빠르게 확산하는 모습이다. 노조 측은 해당 움직임이 사실상 구조조정 성격이라고 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승욱 카카오 노조 지회장은 조정장 입장 전 취재진과 만나 “지금 카카오 구성원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건 회사에 대한 신뢰 붕괴”라며 “오늘 협상에서 회사가 실제로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사측은 공식 발언을 최대한 자제했다. 신종환 카카오 최고재무책임자 CFO는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조정장으로 향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단순 임단협 갈등으로만 보지 않는 분위기다. 최근 카카오 공동체 전반에서 이어진 조직 개편과 사업 효율화 작업, 일부 계열사의 인력 재배치 논란 등이 누적되며 내부 피로감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AI 중심 사업 재편 과정에서 조직 긴장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보상 문제까지 겹치며 갈등이 한꺼번에 표면화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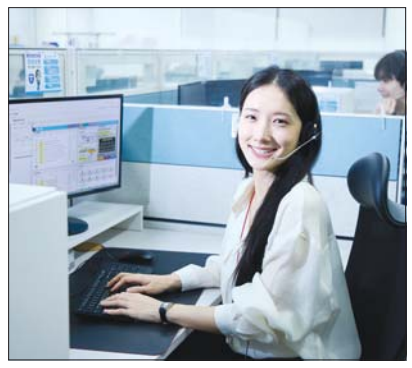
다만, 핵심 개발 조직과 운영 조직이 동시에 쟁의 국면에 들어설 경우 신규 프로젝트 일정과 조직 운영 안정성에 부담이 생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업계 일각에서는 카카오톡 등 주요 서비스 상당수가 자동화 시스템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어 단기간 내 서비스 장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용자 체감 불편보다는 기업 이미지와 조직 안정성, 투자 심리 측면 충격이 더 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KSQI 콜센터 부문

SKT, 14년 연속 ‘우수 콜센터’ 선정

‘AI 기반 고객응대’ 서비스 경쟁력
응대방식 정서적 공감요소 보강
AI 활용으로 상담사 전문성 제고


SK텔레콤은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QI) 콜센터 부문에서 14년 연속 우수콜센터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SK텔레콤

SK텔레콤은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QI) 콜센터 부문에서 14년 연속 우수 콜센터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서비스 품질 영역 중 상담 태도, 맞이 인사 및 종료 태도, 업무처리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회사 측은 콜센터 서비스 경쟁력으로 인공지능(AI) 기반 고객 응대를 꼽았다. 현재 모든 콜센터가 AICC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특히 AI 챗봇·콜봇을 통한 24시간 가동 시스템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은 민원을 AI 실시간 어시스턴트가 즉시 분석해 상담사가 정확하고 빠른 답변을 제공할 수 있게 한다.

정서적 공감 요소를 보강한 응대 방식도 주목된다. 상담 요청 시 30년 이상 이용한 장기 고객에게는 감사 인사를 먼저 전한기도 한다. 여기에 AI 기반 상담 요약, 고객 감정분석, 답변 추천 등을 통해 얻은 데이터로 신뢰도와 정확도를 동시에 높였다.

상담사 전문성도 제고하고 있다. AI 활용도를 높여 반복적인 업무로 인한 피로도를 낮추고 심리 케어 프로그램과 문화 활동 지원도 지속하고 있다.

/조민선 기자

LG U+ “고객감동콜센터, 고객 중심 상담 경쟁력 입증”

2년 연속 선정… 통신사 중 유일
서비스 품질 영역서 고득점 획득

LG유플러스는 서비스품질지수(KSQI) 콜센터 부문에서 2년 연속 고객감동콜센터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KSQI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주관으로 매년 네 차례 콜센터 서비스 품질을 조사해 품질을 평가하는 지표다. LG유플러스는 초고속인터넷·홈 고객센터 전 분야에서 고객감동콜센터, 우수콜센터에 선정됐다. 특히 고객감동콜센터 선정은 국내 통신사 중 LG유플러스가 유일하다. 회사 측은 “고객 중심 상담 경쟁력을 입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고객감동콜센터는 서비스 품질 영역에서 92점 이상을 충족해야 획득할 수 있다. 특히 공감 영역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성과 배경으로는 AI 기반의 상담 혁신과 공감 역량 강화를 꼽았다. 상담사가 고객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AI를 통해 상담 환경을 개선한 것이다.

아울러, 고객 스스로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했다. 보이는 ARS 등 셀프 서비스 채널을 통해 상담 대기 시간을 단축했다.

상담 정확도 향상은 실시간으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AI 상담 어드바이저(LLM)가 주효했다.

AI 상담품질관리 시스템 ‘AI 오토 QA’ 도입은 상담 품질 점검 및 피드백 체계 구축을 뒷받침했다. 이에 KSQI 비대면채널 선도기업 부문에도 선정됐다.

/조민선 기자

KT, 생성형 AI로 비대면 상담 품질 높여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 우수콜센터

KT는 서비스품질지수(KSQI) 콜센터부문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 분야에서 우수콜센터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KT는 비대면 상담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고객센터에서 챗GPT, 클로드 등 글로벌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했다.

AI 보이스봇 ‘지니’를 통해 매일 공백 없이 자연스러운 수준의 음성 응대를 제공한다. 또한, 챗봇에 거대언어모델(LLM)을 적용해 상담 유연성과 일관성을 높였다. 이 밖에 상담사를 지원하는 어시스턴트를 통해 실시간 답변 추천과 상담 내용 요약 기능도 활용하고 있다.

/조민선 기자

카카오, ‘카나나 스칼라’로 산학협력 강화

콜로키움 학술 교류 프로그램 진행

카카오가 인공지능(AI) 협력 프로그램 ‘카나나 스칼라’를 통해 학계와의 산학 협력 강화에 나섰다.

카카오는 지난 22일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카카오 AI캠퍼스에서 ‘카나나 스칼라’의 일환으로 콜로키움 학술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카카오 AI 연구진과 학계 연구자들이 최신 AI 기술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카카오 AI 모델 개발 임직원과 카나나 스칼라 자문 교수진 및 연구진이 참여했다.

카나나 스칼라는 카카오가 지난 3월 출범한 AI 협력 프로그램으로, 학계 전문가 및 미래 AI 인재와의 교류 확대를 목표로 한다. 자문 그룹은 국내 주요 대학 AI·컴퓨팅 분야 교수진 7인으로 구성됐다.

카카오는 이번 행사에서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과 서비스 적용을 위한 모델 고도화 연구를 소개했다. 카나나 파운데이션 모델과 에이전틱 AI, 멀티모달 모델, AI 안전성 등 주요 연구 방향과 서비스 적용 사례도 공유했다.

이어 진행된 포스터 세션에는 KAIST와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 연구진이 참여해 최신 AI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발표 주제는 ▲대규모언어모델(LLM) 에이전트 추론 효율 및 신뢰성 향상 ▲멀티모달 AI 안전성 강화 ▲연합학습 기반 모델 개인화 ▲초장문 영상 이해 ▲실시간 립싱크 생성 ▲3D 비전 및 인간-물체 상호작용 모델링 등 실제 서비스 적용 가능성이 높은 기술 중심으로 구성됐다.

/최빛나 기자 vitna@

그라비티, ‘라그나로크3’ 개발 방향 공개

개발자 인터뷰, 조회수 150만 돌파

그라비티의 홍콩 지사 그라비티 게임 비전(GGV)이 정식 넘버링 MMORPG 신작 ‘라그나로크3’ 개발자 인터뷰 영상을 27일 공개했다.

라그나로크3는 GGV와 조이메이커가 공동 개발 중인 라그나로크 온라인 정식 넘버링 타이틀이다. 원작 감성과 정통성을 계승한 대형 프로젝트로 개발 중이다.

앞서 공개된 공성전과 10인 던전 콘텐츠 영상은 공개 일주일 만에 조회수 150만 회를 돌파하며 글로벌 이용자 관심을 끌었다.

이번 인터뷰 영상에서는 개발자 Yu가 등장해 라그나로크3의 개발 방향성과 핵심 설계 철학을 소개했다. 개발진은 원작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화면 연출과 시스템 설계, 던전 및 길드 콘텐츠 등 핵심 요소를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라비티의 홍콩 지사 그라비티 게임 비전이 정식 넘버링 MMORPG 신작 ‘라그나로크3’ 개발자 인터뷰 영상을 공개했다. /그라비티

Yu는 특히 PC 플랫폼 중심 개발을 강조했다. PC 환경에 최적화된 전투와 조작 시스템을 구현하는 동시에 PC·모바일 크로스 플랫폼 연동도 지원할 계획이다.

영상에서는 신규 5인 던전과 시즌제 콘텐츠, 강화된 전투 타격감, 개선된 사용자 환경(UI) 등도 함께 공개됐다. 기존 직업 시스템과 클래식 감성은 유지하면서 현대적인 플레이 경험을 더한다는 방침이다.

GGV는 장기 운영 방향으로 ▲PC 플랫폼 맞춤 개발 ▲전략 및 팀 상호작용 중심 던전 플레이 등을 제시했다. /최빛나 기자

“큰놈만 오른다”… 반도체 레버리지發 증시 양극화 심화

삼전·하닉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몰려
“변동성 촉매제 될 수 있어” 우려
코스피 4% 올랐지만 코스닥은 하락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증시에서 지금 블랙홀로 떠올랐다.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50%가량을 차지하는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을 ±2배로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선보이면서 ‘반도체 쏠림’ 현상이 더 가속화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그 이면엔 어두운 그림자도 있다. 반도체 두 종목이 사실상 주가 상승을 이끌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증시에서도 윗목과 아랫목의 온도 차가 큰 ‘K자형 양극화’가 나타나는 모양새다. 큰놈만 잘나가는 ‘코스피 디바이드(격차)’다.

◆ ‘투톱’ 레버리지에 쏠림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미래에셋·한국투신·KB·한화·키움·하나·신한 등 주요 자산운용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일간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과 인버스 상품을 동시에 선보였다.

상장 첫날 이들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뭉칫돈이 몰리며 급등했다. 이날 종가 기준 KODEX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는 2만7775원으로 기준가 대비 18.44% 올랐다. TIGER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는 2만3695원으로 18.56% 상승했다. 장 초반 급등세를 보였던 삼성전자는 상승폭 일부를 반납한 채 2.68% 상승 마감했다. 이에 삼성전자 일간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KODEX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는 5.52% 오른 2만2830원, TIGER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는 5.53% 상승한 2만108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이들 레버리지 상품 덕에 이날 상장지수펀드(ETF)의 시가총액도 역대 처음 500조원을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이 반도체 대형주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레버리지 상장 효과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 급등의 영향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각각 2.68%, 9.31% 올랐다. 삼성전자는 종가 기준 사상 첫 ‘30만전자’(주가 30만7000원)에 올랐다. SK하이닉스는 시가총액이 1조달러선을 넘어서면서 삼성전자에 이어 국내기업으로는 두 번째로 ‘시총 1조달러 클럽’에 올랐다.

시장에서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이 일시적인 변동성 촉매제가 될 수 있다”며 “증시에 신규 유동성을 공급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현재 주도주이자 개인 수급이 집중된 종목인 만큼 출시 직후 수급 쏠림이 나타날 경우 장 마감 동시호가 시간대로 갈수록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도 끊이지 않는다. 시장에선 인공지능(AI)이 메모리 업계의 고질적인 ‘호황 뒤 불황’ 사이클을 끊어냈다는 낙관론이 번지고 있지만, 전문가들과 투자업계에선 과도한 낙관론에 대한 경계감도 커지고 있다. 영국계 자산운용사 블루박스의 포트폴리오 매니저 윌리엄 드 게일은 CNBC에 “메모리는 본질적으로 극심한 등락을 반복하는 끔찍한 산업”이라며 “‘메모리 사이클은 사라졌고, 장기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 됐다’는 주장이 나올 때마다 어김없이 업황이 꺾이곤 했다”고 밝혔다.

◆ ‘K양극화’ 해소 과제

이날 코스피는 한국 증시 사상 처음으로 8400대에 진입했다. 코스피 급등의 일등 공신은 단연 반도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가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약 49%)을 감안하면 올해 코스피 상승분의 70% 이상을 두 회사가 담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두 회사의 실적 개선 효과만으로도 올해 코스피가 1만선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코스피 8000은 한국 증시 역사를 새로 쓴 이정표지만, 그 이면엔 짚어봐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반도체 쏠림과 이로 인한 착시를 경계해야 한다. 반도체가 흔들리면 증시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구조적 리스크가 커졌다.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이 확연히 갈리는 증시 양극화도 심화됐다. 이날 코스피가 2.25% 올라 사상 최고치(8228.70)를 기록했지만, 하락 종목은 826개로 상승 종목(75개)의 12배를 넘었다. 개인 투자자 비율이 높은 코스닥시장은 오히려 하락했다. 올 1분기 경제 성장률은 1.7%였지만, 반도체를 빼면 0.8%로 떨어진다. 증시뿐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의 반도체 쏠림 현상이 심해진 것이다.

증시와 실물 경기의 괴리도 크다. 주가는 연일 사상 최고치이지만 고환율과 내수 침체로 서민 경제는 겨울이다. 유가가 치솟으면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6% 뛰었다.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치인 2%를 2개월 연속 웃돌았다. 고유가·고환율에 이어 고물가까지 3고(高)가 고개를 들고 있다. 증시 호황이 소비를 늘리고 기업 투자와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도 작동하지 않는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메모리 업황 개선에 삼전·하닉 몸값 재평가

미래에셋증권 “밸류에이션 상향”
삼전 55만원, 하닉 380만원 예상

미래에셋증권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각각 55만원과 380만원으로 상향했다.

김영건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27일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48만원에서 55만원으로 14.6% 상향한다”고 밝혔다.

그는 “실적 전망은 직전 추정과 같이 유지한다”면서도 “글로벌 메모리 업종 전반의 밸류에이션 상향 기조에 따라 12개월 선행 EV/EBITDA(기업가치대비 현금창출력) 적용 배수를 6배에서 7배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는 MU(마이크론)와 키옥시아 등 글로벌 메모리 2개사의 현재주가 기준 배수의 평균이라고 김 연구원은 짚었다.

그는 “현 주가 기준 동사의 12개월 선행 주가순자산배수(P/B) 및 주가수익비율(P/E) 배수는 2.3배와 5.7배 수준으로 양사 평균(각각 6.2배, 10.1배)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업종 내 대부분 업체가 주가 강세를 보이며 밸류에이션 격차의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개별 기업의 적정가치에 가까워질수록 배수 상단으로 수렴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목표주가를 320만원에서 380만원으로 18.8% 상향하면서 “글로벌 메모리 업종 전반의 밸류에이션 상향 기조에 따라 P/B 적용 배수를 5.3배에서 6.2배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그는 “높아진 메모리 가격 레벨과 장기공급계약(LTA) 비중 확대로 2026~2028년 평균 자기자본이익률(ROE)이 66%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한다. 과거 10년 평균은 19%였다”면서 “높은 P/B 계수를 부여받아야 합당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 모두에 대해 “하반기로 갈수록 내년 밸류에이션을 고려한 새로운 눈높이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신하은 기자 godhe@

삼성전기·LG이노텍, AI 특수에 신고가 행진

패키지 기판 수요 급증
증권가 목표주가 상향

ChatGPT로 생성한 관련 이미지.

인공지능(AI) 투자 수요가 촉발한 반도체 활황이 패키지 기판 시장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AI용 서버에 들어가는 고사양 기판의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서, 선두주자인 삼성전기의 몸값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LG이노텍까지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기판 공급 부족 현상이 고사양에서 범용 제품으로까지 내려오면서 주가 재평가가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전 거래일 대비 3.69% 상승한 163만원에 마감했다. LG이노텍은 2.25% 하락한 104만4000원에 마감했다.

최근 기판 관련주 랠리의 핵심 키워드는 AI 서버와 데이터센터, 자율주행차 등에 탑재되는 고사양 반도체용 패키징기판(FC-BGA)이다. 엔비디아가 블랙웰 등 차세대 그래픽처리장치(GPU)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기판의 크기가 커지고 층수가 높아지는 ‘대면적·고다층화’가 진행되면서 수요가 더욱 급증하고 있다.

삼성전기는 FC-BGA 공급 부족 속에서 대규모 추가 투자를 진행하며 올해 안에 AI용 기판 시장 글로벌 1위 달성을 노리는 상황이다. 동시에 적층세라믹커패시터(MLCC) 부문에서도 AI 반도체와 산업용 수요 급증으로 공급 부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SK증권은 이날 삼성전기 목표주가를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렸다. 박형우 연구원은 “메모리와 함께 기판·MLCC가 AI(인공지능)의 핵심부품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삼성전기는 글로벌 부품사 중 유일하게 MLCC와 FCBGA(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를 자체 생산하는데, 두 제품군이 한 회사 안에서 결합할 때 발생하는 시너지가 다른 부품사들과의 차별점”이라고 짚었다. 이어 “향후 실적의 최대 업사이드(상승 여력)는 MLCC”라며 “지난 1년간 D램 컨트랙트 가격은 세자릿수 % 상승했지만, MLCC는 5% 안팎 상승에 그친 가운데 MLCC 가격 인상 사이클은 이제 초입”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LG이노텍도 AI덕을 보고 있다. 증권사들은 앞다퉈 LG이노텍 목표주가를 끌어올렸다. 하나증권은 목표주가를 종전 7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올려 증권가 최고 수준으로 발표했고, 같은 날 유진투자증권(105만3000원), iM증권(100만원)도 목표가를 올렸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극심한 공급 부족에 직면한 기판 사업은 1천조원을 상회하는 AI 투자로 공급 병목이 발생한 메모리 반도체 산업과 닮아 있다”고 했다. 이어 “빅테크 업체들은 공급 부족 심화에 대응해 구속력 있는 장기공급계약(LTA)과 선수금 기반 설비투자 지원을 동시에 논의 중”이라며 “에이전틱 AI 확산으로 연간 토큰 사용량이 7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AI 데이터센터 확충과 메모리 용량 확보가 한층 시급해지면서 기판 공급 부족은 향후 1~2년 내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했다.

/허정윤 기자

학계 “중복상장시 특별위 설치해야” 제언

중복상장 제도개선 세미나

중복상장에 따른 주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독립이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구성, 이사회 결정의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왕수봉 아주대 경영학 교수는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중복상장 제도개선 세미나의 발표자로 나서 이러한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중복상장 관련) 모회사 이사회 결정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이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며 “주주 영향 평가의 객관성과 주주 보호 방안 및 절차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복상장은 모회사가 이미 상장된 상태에서 자회사를 상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액주주들은 이러한 행위가 기존 주주들의 이익을 훼손한다고 비판해 왔다.

왕 교수는 최근 자진 상장폐지나 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 실제로 특별위원회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예컨대 “신세계푸드는 이마트[139480]와의 주식 교환을 위해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된 특별위를 설치해 거래의 필요성, 조건의 공정성, 절차의 적절성 등을 검토해 이사회에 보고한 바 있다”고 왕 교수는 설명했다.

왕 교수는 이에 더해 중복상장 추진 기업의 경우 ▲주주 영향 평가 ▲주주 보호방안 마련 ▲주주 소통 ▲찬반의결 결의·통지 ▲공시 등 5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왕수봉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27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중복상장 제도개선 의견수렴을 위한 세미나’에서 발제 하고 있다. /신하은 기자

앞서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중복상장에 대해 ‘원칙금지·예외허용’ 기조를 제시했다.

중복상장 심사 기준은 영업의 독립성과 경영의 독립성, 투자자의 보호로 구분해 종합적인 심사를 진행하며, 주주 소통 및 보호 방안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 등도 심사 기준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하은 기자

공정위, 조사국 기능 부활… 거대 플랫폼·재벌기업 정조준

국민주권정부 1주년 간담회

주병기 위원장, 주요 추진과제 발표
역대최대 규모 조직·인력 확충 단행
담합 등 불공정행위 처벌 대폭 강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날로 지능화되는 플랫폼 독과점과 대기업집단의 변칙 횡포를 뿌리 뽑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 확충과 고강도 제재 카드들을 꺼냈다. 법리 다툼을 넘어 빅데이터와 알고리즘 싸움이 된 최신 시장 환경에 맞춰 '경제분석국'을 신설하는 한편, 과거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렸던 조사국 기능을 부활시켜 쿠팡·네이버 등 거대 플랫폼과 재벌 기업들을 정조준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위 조직·인력 확충 방안 및 향후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37명(본부 84명, 지방사무소 70명 등) 규모의 조직·인력을 확충한다. 관련 직제 개정 절차는 오는 6월 내 마무리되며, 사무공간 조성이 완료되는 4분기부터 본격 가동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대형 플랫폼과 대기업 사건을 전담할 국(局) 단위의 '중점조사기획단(40명 규모)'이 신설된다. 기존 중점조사팀(7명)에 33명을 대거 증원해 3개 과(중점조사 1·2·3담당관) 체제로 운영된다. 이는 지난 2005년 폐지된 공정위 '조사국'의 부활로 해석된다. 과거 조사국은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조사를 전담하며 기업들의 저승사자로 불린 바 있다.

주 위원장은 특히 쿠팡, 네이버, 배달의민족 등 거대 플랫폼 기업들을 직접 지목했다. 그는 "최근 쿠팡뿐 아니라 네이버, 배민 등 플랫폼과 관련해 다양한 법 위반이 결합한 복합적이고 중대한 불공정 행위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복합적인 사건을 복합적인 관점에서 하나의 조직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새로운 특수조직·기동대가 필요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플랫폼의 알고리즘 자사우대 등 신유형 기술 무기에 대응할 '두뇌' 조직도 강화된다. 기존 과 단위였던 경제분석 기능을 국 단위로 확대한 '경제분석국(37명 규모)'이 신설된다. 주 위원장은 "공정거래 사건처리의 일선 현장은 이제 법리 다툼에서 '데이터와 통계의 싸움'으로 전장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며 "박사급 전문인력을 전면 배치해 공정위의 분석 역량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밝혔다.

독점·꼼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초강수 법 개정안들도 대거 공개됐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행위에 대해 기업 총수(동일인)를 겨냥한 '과징금' 도입을 추진한다. 주 위원장은 "현행 형벌(1억 5000만 원 이하 벌금)만으로는 법 위반 억지력이 충분하지 않다"며 "동일인에게 정액과징금 200억 원, 100억 원, 50억 원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했다.

특히 최근 법원이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공정위 처분에 대해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주 위원장은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쿠팡 측이 총수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서약서에 썼는데, 그와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돼 동일인 지정을 했던 것"이라며 "허위사실이 입증됐을 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 현행법상 고발 등 형사 제재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기간 은폐되는 담합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된다. 반복 담합 사업자는 시장 참여를 실질적으로 제한(등록·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현재 최대 12년인 담합 처분시효를 사실상 행정처분 최장기한인 '최대 15년'까지 늘리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배달앱 및 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신속한 심의 계획도 공식화됐다. 전분당, 국고채 등 주요 담합 사건은 가급적 3분기 중에 심의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특히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최근 신청한 '최혜대우 요구 사건' 관련 동의의결에 대해서도 주 위원장은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신속히 심의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한전, AI·빅데이터 기반 전력망 혁신 추진

수요분석 고도화·첨단설비 최적화
연간 1100억 전력구입비 절감 기대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결합한 전력망 운영 혁신을 통해 매년 1100억 원에 달하는 전력구입비 절감에 나선다. AI 기반의 정밀한 수요 예측과 첨단 전력설비 최적화를 통해 데이터센터 확대와 전기차 보급 등으로 급변하는 전력 소비 패턴에 대응하고 전력망의 고질적인 병목현상을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전은 AI 기반의 전력망 수요 분석 모델을 고도화하고, 올해 준공된 첨단 전력설비의 운영 방식을 최적화해 전력망 운영 효율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한전은 기존 전력망 수요 분석 모델을 AI 기반으로 전면 개편했다. 과거 모델이 서울·경기·부산 등 일부 지역의 데이터 159개에 의존했던 반면, 새롭게 완성된 신규 모델은 전국에서 추출한 9만 5000개의 실제 전력망 운영 데이터를 AI로 분석했다. 최신 트렌드인 데이터센터와 전기차의 소비 특성까지 정밀하게 반영되면서 전력망 운영의 정확도가 획기적으로 올라갔다.

한전은 이 AI 모델 도입을 통해 동해안과 호남지역 저비용 발전기의 발전량 조정 부담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연간 약 600억 원의 전력구입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첨단 설비를 활용한 전력망 안정화 대책도 더해진다. 한전은 올해 준공된 신태백·신양양 변전소의 '초고압 직류송전 계통 안정화 설비(STATCOM)' 운영 방식을 최적화했다. STATCOM은 전력망의 전압이 불안정해질 때 전압을 실시간으로 올리거나 낮춰 균형을 잡는 첨단 장치다.

이번 최적화로 전력망 고장 발생 시 전압을 즉각적으로 안정화할 수 있게 되면서, 동해안에서 생산된 동급 대비 저렴한 전기를 수도권 등 수요지로 더 많이 송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를 통한 추가 전력구입비 절감 예상액만 연간 약 500억 원에 달한다.

김동철 한전 사장(사진)은 "AI를 활용한 전력망 운영 혁신은 국민들께 보다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한전은 전력망 운영 효율을 높여 국민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aT, 'K-스낵' 수출 앞장… 1500만弗 상담

美 'Sweets&Snacks Expo' 참가

북미대륙 최대 스낵전문 식품박람회에서도 K-푸드의 진가가 드러났다. 현장에서는 쌀과자와 식혜 등 쌀 가공 제품이 인기를 모았다.

2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국내 식품수출기업 등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스낵전문 박람회 '2026 Sweets&Snacks Expo'에 참가해 1500만 달러 규모의 상담 성과를 거뒀다.

공사는 이번 박람회에 통합한국관을 꾸려 10개의 K-스낵류 벤더들의 참가를 지원했다. 식혜와 쌀과자 등 쌀 가공 스낵을 비롯해 다양한 맛과 식감의 스낵과 젤리 등을 선보이며 바이어와 방문객의 이목을 끌었다.

aT의 전기찬 수출식품이사는 "미국은 올해 4월 말 기준 한국 과자류 수출의 37%를 차지하는 제1 수출시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참가 벤더들의 제품이 현지 대형 유통채널 입점 등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수도권매립지관리公, ESG 전문인력 양성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사내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전문인력 양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7일 공사에 따르면 이 같은 인력 양성 방침은 기관 주요업무 전반에 지속가능경영 관점을 반영한다는 목표 아래 마련됐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실천 및 사회적 가치 확대 등을 도모한다는 중장기 계획이다.

전문인력은 실무 중심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특히 단계별 교육체계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직무 특성에 맞춘 맞춤형 교육의 운영을 실시하게 된다.

주요 교육과정은 ▲기초 및 종합과정 ▲환경정책 및 법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생물다양성 대응 ▲주민참여 협력체계 ▲공시 검증 과정 등이다. 직무별 특성에 맞춰 교육을 진행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고물가에 소비 양극화… 업태별 명암 뚜렷

산업부 4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

중동 정세 불안 등 지속되는 고물가 여파로 유통업계의 희비가 극명하게 갈렸다. 프리미엄 명품을 찾는 '럭셔리 소비'와 극가성비를 추구하는 '실속형 소비'로 패턴이 쪼개지면서, 백화점과 편의점·온라인은 완연한 성장세를 보인 반면 중간 지대에 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는 깊은 부진의 늪에 빠졌다.

27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4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주요 유통업체 전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했다. 오프라인(6.7%)과 온라인(7.5%) 모두 외형적 성장을 기록했으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업태별 명암이 뚜렷했다. 특히 온라인 매출 비중은 전체의 60.3%를 기록하며 오프라인(39.7%)을 압도했다. 온라인은 19개월 연속 오프라인 매출을 앞지르며 유통업계의 절대적 대세로 자리 잡았다.

오프라인 시장에서는 백화점의 독주가 눈에 띈다. 4월 백화점 매출은 전년 대비 무려 21.7% 급증하며 10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엔데믹 이후 패션 수요 회복과 더불어 명품을 대변하는 '해외유명브랜드' 매출이 38.1% 폭등(13개월 연속 증가)하며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 이외에도 여성정장(14.7%), 여성캐주얼(21.1%), 남성의류(12.8%) 등 의류·잡화 부문 전반이 두 자릿수 성장세를 기록했다.

편의점 매출은 전년 대비 3.3% 늘어나며 백화점과 마찬가지로 10개월 연속 성장세다. 이른 무더위로 음료 등 가공식품 매출이 5.1% 늘었고, 즉석식품과 생활용품 등 전 부문이 골고루 성장했다.

반면 중간 가격대와 일상적 기능을 담당하는 대형마트(-6.6%)와 SSM(-6.9%)은 일제히 고전했다. 대형마트는 가전·문화(+10.7%) 부문을 제외하고 가정·생활(-9.6%), 식품(-9.4%) 등 주력 상품군 부진 뚜렷하다. SSM 역시 식품(-7.1%)과 비식품(-5.1%)이 동반 하락한 것은 물론, 객단가와 구매건수가 모두 떨어지며 점포당 매출도 5.4% 감소했다.

온라인 매출은 식품(9.7%), 가전·전자(7.3%) 등 전 영역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글로벌 무대에서 부는 'K-뷰티' 열풍에 힘입어 화장품 매출은 15.4%나 폭증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국마사회, '컴플라이언스 어워즈' 대상

한국마사회가 '2026 상반기 대한민국 컴플라이언스 어워즈'에서 공기업 부문 대상을 받았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 어워즈 행사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준법경영, 윤리경영, 내부통제 등 이른바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데 목적을 둔다.

마사회는 경마사업의 공정성과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업무 특수성을 반영해, 내부통제와 윤리·준법경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단순한 국제표준 인증 유지에 머무르지 않고, 내부통제위원회 운영, 리스크 평가체계, 현업부서 사전 점검, AI 기반 관리 시스템 등을 실제 업무 프로세스와 유기적으로 연계했다.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준법경영 체계를 구축한 점이 인정받았다. /세종=김연세 기자

Since 1996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건강창업의 새로운 기준!

대한민국 유통 명가 햇터그룹이 당신의 '성공창업'을 지원합니다.

30년 유통 노하우와 브레인TV 홍보 지원으로 검증된 건강 브랜드,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공식파트너 모집

불황에도 꺾이지 않는 30년 건강 비즈니스, 이제 당신의 이름으로 시작하십시오.

자사 TV 방송국 광고 지원
브레인TV 채널 노출을 통한 강력한 마케팅

건강에 대한 모든 해답을 한 곳에!
명품 홍삼, 건강식품, 건강용품, 의료기기 등 검증된 라인업

유연한 창업 모델
무점포부터 대형 매장까지 맞춤형 컨설팅

최저 창업 비용 398만원
부담 없고 합리적인 창업비용으로 실질적인 기회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30년 노하우를 통째로 빌려드립니다.

상담 문의 환영 1522-7585

창업상담 방문을 하시는 모든 분께
- 무료 창업 컨설팅 제공
- 창업가이드북 증정
- 홍삼선물세트 198,000원 상당 증정

QR 스캔
대한홍삼(주)

대한홍삼[주] www.koreahongsam.co.kr
본사 : 서울시 금천구 가마산로 96 대륭테크노타운8차 601호
(가산디지털단지역 하차 ▶ 1호선 11번 출구 / 7호선 9번 출구)

Since 1996
햇터그룹
Haetter Group

경북도, 김천~구미 광역철도 추진 탄력… 예타 부담 줄었다

예타 기준 500억→1000억 상향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 여건 개선
기존 경부선 활용 서부권 연결 추진
구미~경산 1단계 효과 확산 기대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가 추진 중인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 김천~구미 구간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 상향이 확정되면서 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대구권 광역철도 1단계 구미~경산 구간은 2024년 12월 개통한 비수도권 최초 광역철도로, 경부선 기존 선로의 여유 용량을 활용한 저비용·고효율 철도망으로 평가받고 있다.

개통 이후 1년간 누적 이용객 512만 명을 기록하며 출퇴근 편의 향상과 생활권 확대 등 지역 간 이동 여건 개선 효과를 내고 있다.

김천~구미 구간은 이 같은 광역철도 효과를 서부권으로 확장하는 2단계 사업이다. 기존 경부선 선로를 활용해 김천과 구미를 연결함으로써 서부권 생활권 확대와 철도교통 소외지역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사업은 2021년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됐지만, 당시 광역철도 지정 기준인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 제한으로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이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광역철도망 확충을 위해 반경 40㎞ 기준을 삭제하면서 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됐다. 이에 따라 김천~구미 구간은 2024년 8월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안에 신규 반영됐다.

또 당초 총사업비 458억 원 규모였던 사업은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500억 원을 초과하면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됐다. 그러나 올해 3월 예타 대상 기준금액이 총사업비 5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사업 추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도는 그동안 김천~구미 광역철도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왔으며, 광역철도 지정 기준 완화와 예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속 건의해 왔다.

현재 운영 중인 대구권 광역철도 구미~경산 구간은 총연장 61.9㎞ 규모로 구미·왜관·대구·동대구·경산역 등 기존 5개 역을 개량하고 사곡·서대구·북삼역 등 3개 역을 신설해 운영 중이다.

광역철도 개통 이후 지역 간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통근 여건이 개선됐고, 구미 라면축제와 김천 김밥축제, 칠곡 낙동강평화축제, 경산 대추축제 등 지역 축제와 연계한 관광 활성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경북도는 김천~구미 2단계 사업과 함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구권 광역철도 3단계 경산~청도 구간과 동대구~영천~포항 광역철도 노선 신규 반영도 건의하고 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부산시
소통 캐릭터 '부기' 상품화 지원

부산시 소통 캐릭터 '부기'의 저작권이 지역 업체 29곳에 3년간 무료 사용이 허용됐다. 부산시는 부기 저작재산권 개방사업의 상반기 신청 결과, 총 29개 업체를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관광기념품·캐릭터 상품(굿즈), 식품 패키지, 생활·뷰티용품, 디지털 콘텐츠, 반려동물 상품 등 승인일로부터 3년간 부기 캐릭터를 이용해 온·오프라인 상품 개발 및 콘텐츠 제작 등을 할 수 있다. 이용 기간 만료 전 재신청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 /부산=이도식 기자

영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가동

영양군이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계곡과 하천을 찾는 이용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영양군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오는 6월 26일부터 8월 27일까지 두 달간 '2026년 물놀이 안전지킴이 활동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 기간 동안 관내 물놀이 관리지역 9개소와 위험지역 3개소 등 총 12개소에 24명의 물놀이 안전지킴이가 현장 배치된다. 주요 배치 지역은 여름철 피서객들이 대거 몰리는 ▲현동교 ▲토구숲 ▲칠성리 와구교 ▲장수포천 ▲송하계곡 ▲본신계곡 ▲수하 번동6교 ▲장파천 ▲삼의계곡 등 관내 주요 하천과 계곡 중심이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나주시
임신·출산·양육 정보 모바일 제공

전남 나주시가 임신 준비부터 출산·양육까지 관련 지원 정책을 모바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자책(E-book) 서비스를 도입했다. 종이책자의 접근 한계를 보완해 시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나주시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나주시 임신·출산·양육 지원사업 안내' 책자를 전자책 형태로 제작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시작했다. 시민들은 나주시와 보건소 누리집 첫 화면의 '임신·출산·양육지원' 배너를 클릭하면 별도 앱 설치나 회원가입 없이 컴퓨터와 스마트폰에서 관련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나주(전남)=양수녕 기자 ysn6313@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바르셀로나상의와 투자유치 협력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1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상공회의소(CCB)와 투자유치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바르셀로나 상공회의소는 1886년 설립된 스페인의 대표 경제기관으로, 현재 약 33만 5000 개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고, 지역 기업의 권익을 대변하며 글로벌 비즈니스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 중이다. 협약은 양 지역 기업들의 투자와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상대 지역 투자활동 지원 ▲투자 연계 마케팅 협력 등이다. 이번 MOU는 DGFEZ가 지난 3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진행한 투자유치 IR 활동의 성과로 추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구=김강석 기자 presskim@

경남도, 김해 관광개발 국비 60억 확보

문체부 지역관광개발 공모 선정
김해공항·부산항·마산항 연계

경남도는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공모에 김해시 사업이 선정돼 국비 6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김해시와 함께 김해공항과 부산항·마산항 연계 '동남권 글로벌 관광 관문'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은 지역 핵심 관광자원을 현대적 트렌드에 맞게 재해석하고 관리·운영 체계를 혁신하여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구축하는 중규모 사업이다.

경남도는 지난해부터 공모 대응을 위해 외부 전문가 컨설팅 및 자체 평가를 실시했으며, 김해시 사업을 경남 대표 사업으로 확정해 추천했었다.

선정된 김해 사업은 '동남권 글로벌 여행 관문, 김해: 하늘로·바다로, 김해로(路)'이며,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총 120억원이 투입된다.

경남도와 김해시는 가야 역사문화와 다문화적 지역 특성이 공존하는 김해의 강점을 활용해 차별화된 관광도시를 조성을 추진한다.

특히 김해공항 입국 외국인 관광객과 부산항·마산항 입항 크루즈 관광객을 경남 관광으로 연계해 인바운드 관광(외국인의 국내 여행) 거점을 구축할 방침이다. 사업 대상지는 수로왕릉 주변 회현동 일대와 김해 원도심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주요 사업은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 시작을 지원하는 '아유타 라운지 조성' ▲'금바다 김해' 이미지를 부각하는 '봉황대길 골드스트리트 명소화' ▲인도에서 온 허황후 역사와 남부권 최대 아시아 마켓이라는 지역성을 결합한 '김해 카레축제' 개최 ▲관광도시 김해 매력을 알리는 '관광 브랜딩 사업' 등이다. /창원(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포항, 中 징먼시와 경제·교육 교류 강화

리우민 부서기 등 대표단 방문

장상길 포항시장 권한대행(오른쪽)이 26일 포항시를 방문한 중국 우호교류도시 징먼시 리우민 당위원회 부서기와 양 도시 간 교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항시가 중국 우호교류도시인 징먼시 대표단과 만나 경제·문화·교육 분야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포항시는 26일 중국 후베이성 징먼시 리우민 부서기 일행이 포항을 방문해 양 도시 간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정부 및 교육기관 관계자 7명으로 구성된 징먼시 대표단은 이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포항에 머물며 장상길 포항시장 권한대행과 면담을 갖고 경제·문화·교육 분야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양 도시는 기존 경제·산업 분야 협력을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교류까지 협력 범위를 넓혀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대표단은 방문 기간 지역 주요 산업시설을 둘러보며 포항의 산업 경쟁력을 확인했다. 또 영일고등학교를 찾아 '징먼제1중학교 학생 서화 작품 전시회'를 참관하는 등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충남도, 청년멘토로 로컬창업 키운다

인구감소지역 9개 시군 중심 추진

충남도가 지역 기반 청년 창업가를 '청년멘토'로 육성해 인구감소지역의 로컬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본격 나선다.

충남도는 26일 충남신용보증재단 회의실에서 '충남 로컬창업 청년멘토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지속가능한 창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충남 청년 로컬창업 생태계 구축 프로젝트'의 핵심 프로그램이다.

선발된 청년멘토들은 앞으로 지역별 청년 로컬창업 네트워크 운영을 비롯해 창업 동향 파악 및 과제 발굴, 정기·심화 컨설팅, 성과 공유 및 생태계 활성화 논의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지역 기반 창업가 간 연계와 협업을 이끌며 로컬창업 생태계의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도는 올해 공주·보령·논산·금산·부여·서천·청양·예산·태안 등 도내 인구감소지역 9개 시군을 중심으로 청년멘토를 선발했다. 지역별 최소 1명 이상을 배치해 촘촘한 지역 창업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에서는 프로젝트 사업 설명과 네트워크 운영 방향 안내가 진행됐으며, 김만이 초록코끼리 대표가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역량 강화를 주제로 전문 교육을 진행했다.

남성연 충남도 청년정책관은 "청년멘토들이 지역 창업가들의 든든한 연결고리이자 성장 파트너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지역 특색 자원을 활용한 로컬창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 청년 로컬창업 생태계 구축 프로젝트'는 청년 로컬창업 교육과 브랜드 개발, 멘토 육성, 네트워크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장기 사업으로, 올해부터 2031년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충남=양대승 기자 zzica@

경주, 노동력 줄이는 벼 재배기술 보급

무경운 이앙 현장 교육·시연 진행

경주시가 벼 재배 농가의 고령화와 농촌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력 절감형 저탄소 벼 재배기술 보급 확대에 나섰다.

경주시는 최근 산내면 외칠리 일원 논에서 벼 무경운 이앙 재배기술 현장 교육과 시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농업기술센터와 신경주농협 관계자, 지역 농업인 등 20여 명이 참석해 무경운 이앙 작업 과정과 재배관리 요령, 현장 적용 시 유의사항 등을 공유했다.

참석 농업인들은 작업 편의성과 물관리 방법, 잡초 방제 기술 등에 관심을 보이며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다.

벼 무경운 이앙은 경운 작업 없이 논 표면 상태를 유지한 채 이앙기로 모를 심는 재배기술이다. 경운 횟수를 줄여 농기계 작업시간과 연료비,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고 토양 교란과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저탄소 재배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무경운 이앙은 레이저균평기를 활용한 정밀 균평 작업이 핵심으로 꼽힌다. 논 표면 높낮이가 고르지 않을 경우 이앙 깊이 불균일과 결주 발생, 물관리 불량, 잡초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혁준 경주시장 권한대행은 "무경운 이앙은 정밀 균평과 체계적인 물관리, 적기 잡초 방제가 함께 이뤄져야 성공할 수 있는 기술"이라며 "노동력 절감과 저탄소 벼 재배기술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술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식음료업계, '시그니처 메뉴' 재출시… 고물가 파고 넘는다

기업, 팬덤고객 요구 적극 반영
검증된 자산… 투자 리스크 최소화
시각·계절요소 결합 등 재해석도

최근 국내 식음료(F&B) 업계가 과거 높은 인기를 누렸으나 여러 사정으로 자취를 감췄던 '시그니처 메뉴'들을 잇따라 재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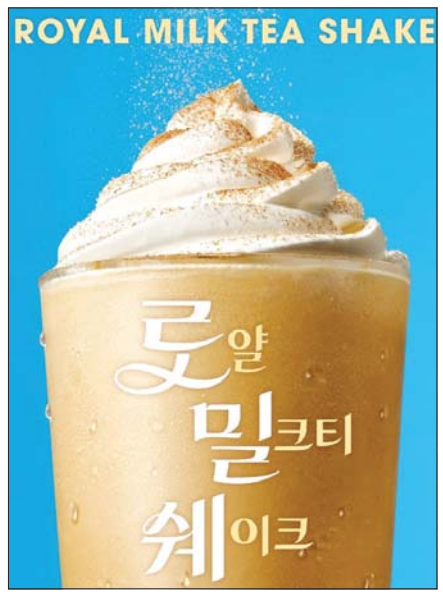
이는 단순한 복고(Retro) 열풍이나 감성 자극을 넘어 팬덤 고객의 요구를 경영에 적극 반영하는 '고객 경험 중심 마케팅'의 일환으로 보인다. 특히 고물가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신제품 개발 리스크가 극도로 높아진 상황에서 이미 검증된 브랜딩 자산을 활용해 가성비와 성공 확률을 동시에 잡으려는 리스크 관리 전략으로도 해석된다.

할리스는 시그니처 블렌디드 음료인 '할리치노 3종'을 전격 재출시했다. 특히 2010년 출시 이후 강력한 팬덤을 형성했던 '다크 포레스트 할리치노'는 아마레나 체리와 초콜릿의 조합을 디저트 한 잔으로 시각화해 단종 이후 끊임없는 재요청을 보낸 핵심 고객층을 완벽히 흡수하고 있다. 여기에 '블루베리 요거트 할리치노'와 '애플망고 할리치노'를 한층 업그레이드된 레시피로 선보이며 라인업을 보강했다.

할라치노 3종 /할리스

투썸플레이스는 연간 70만 잔에 육박하는 판매고를 올렸던 메가 히트 아이템 '로얄 밀크티 쉐이크'를 지난 3월 단종 이후 전격 복귀시켰다.

투썸플레이스는 타 브랜드와 달리 '기존 레시피 변형 없음'을 선언하며 과거의 깊고 부드러운 풍미를 100% 재현했다. 이는 변동성이 높은 시장 환경 속에서 충성도 높은 오리지널 마니아층의 '록인(Lock-in)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로얄 밀크티 쉐이크. /투썸플레이스

폴 바셋은 시각적 요소와 계절감을 결합한 고도화 전략을 택했다. 과거 큰 인기를 끌었던 라벤더 아이스크림을 중심으로 'Lavender Purple'이라는 컬러 테마를 구축, 단순 단품 재출시를 넘어 '라벤더 아이스크림 블루베리 라떼', '우베 카페라떼' 등 보랏빛 비주얼 라인업을 확장했다. 이는 시각적 가치를 중시하는 MZ세대의 SNS 인증샷 소비(Veblen Effect) 트렌드를 정조준한 결과다.

이 외에도 달콤커피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누적 판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검증된 '봄 시즌 베스트 4종'을 재출시하며 시즌제 마케팅을 강화했고, 배스킨라빈스는 메가 IP인 포켓몬스터와 협업했던 '피카 피카 피카츄' 및 '너로 정했다! 이브이'를 다시 선보이며 키덜트 시장 공략을 이어가고 있다.

폴 바셋 라벤더 시즌 음료. /매일유업

식음료업계가 '단종 메뉴'를 다시 꺼내드는 이유는 R&D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콘셉트의 신제품 개발에는 대규모 R&D 비용, 원자재 공급망 확보, 초기 마케팅 비용이 수반되지만 성공 확률은 매우 낮다. 반면, 이미 시장성이 검증된 단종 메뉴의 재출시는 기존 레시피와 인프라를 재활용할 수 있어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이는 비용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하는 고물가 시대의 수익성 방어 전략이다.

또 기업이 고객의 재출시 요청에 응답하는 형태는 소비자에게 '내가 브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효능감을 부여한다. 이는 단순한 소비자를 넘어 브랜드의 자발적 프로슈머를 육성하는 계기가 되며, 장기적인 록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F&B 업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단종 메뉴 재출시 트렌드가 향후 '단순 감성 마케팅'에서 '데이터 기반 큐레이션'으로 진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신제품 개발 없이 과거 자산에만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브랜드의 혁신 이미지가 고갈되고 장기적으로 고령화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며, "전통 시그니처의 안정적인 매출 기반 위에 트렌디한 신제품 개발을 병행하는 '포트폴리오 밸런스'를 유지하는 기업만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낼 것"이라고 제언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제너시스BBQ, 베트남 남부 핵심상권 진출

호찌민 'BBQ 판실롱점' 오픈
"현지 고객접점 확대해 나갈 것"

제너시스BBQ가 베트남 북부 하노이에 이어 남부 최대 도시인 호찌민에 매장을 열며 현지 사업 확대에 나섰다. 북부 지역에서 운영해온 매장 경험을 바탕으로 남부 핵심 상권까지 진출하며 베트남 시장 공략 범위를 넓히는 모습이다.

제너시스BBQ는 최근 베트남 호찌민 푸뉴언 지역 판실롱 거리에 'BBQ 판실롱점'을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호찌민은 베트남 최대 경제도시이자 외식·유통 산업이 활발한 지역으로 꼽힌다. 젊은 인구 비중이 높고 외식·배달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글로벌 외식 브랜드들의 주요 진출 지역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번 매장은 약 317㎡ 규모, 94석의 캐주얼 다이닝 레스토랑(CDR) 형태로 운영된다. 매장이 들어선 판실롱 거리는 카페와 외식 브랜드가 밀집한 지역으로 현지 중산층과 젊은 소비층 유입이 활발한 상권으로 알려져 있다.

베트남 'BBQ 판실롱점' 전경. /제너시스BBQ

BBQ는 현재 하노이 등 베트남 북부 지역에서 40여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회사는 기존 북부권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호찌민까지 사업을 확대하며 향후 동남아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판실롱점에서는 골든프라이드치킨, 시크릿소스치킨 등 치킨 메뉴와 함께 떡볶이, 김치볶음밥, 돌솥비빔밥, 소떡소떡, 치즈볼 등 한식 메뉴도 함께 판매한다.

BBQ 관계자는 "호찌민은 젊은 소비층과 글로벌 외식 브랜드 경쟁이 활발한 시장"이라며 "베트남 남북 주요 거점을 기반으로 현지 고객 접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더본코리아, 당원병 환우용 쿠키 개발

빽다방 메뉴 출시… 판매수익 전액 기부

더본코리아가 희귀질환인 당원병 환우를 위한 전용 쿠키 제품 개발에 나섰다. 환우들이 시중 간식을 자유롭게 먹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의료진과 가족들의 의견을 담아 제품화한 사례다.

더본코리아는 지난 22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열린 국제 당원병 심포지엄에서 당원병 환우용 쿠키 3종을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당원병은 혈당 유지가 어려워 식단 관리가 까다로운 희귀질환으로, 일반 간식 섭취에도 제약이 따른다. 이에 따라 환우와 가족들은 평소 먹을 수 있는 식품을 직접 만들어 섭취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제품 개발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윤구 교수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더본코리아는 지난 1월부터 당원병 환우 가족이 실제로 만들어 먹던 쿠키 레시피를 바탕으로 제품화 작업을 진행했다.

심포지엄에서 선보인 제품은 피칸파이·에그타르트·아몬드튀일 쿠키 3종이다. 일반 설탕 대신 대체당을 사용하고 단백질 함량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의료진 자문과 환우 가족들의 의견도 개발 과정에 반영됐다.

더본코리아는 심포지엄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제품을 추가 보완한 뒤 빽다방 디저트 메뉴로 정식 출시할 계획이다. 판매 수익 전액은 당원병 환우 지원을 위한 기부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백종원 대표는 "당원병 환우와 가족들이 겪는 식생활 불편을 덜 수 있도록 제품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며 "의료진과 환우 가족 의견을 반영해 완성도를 높이고 관련 질환에 대한 관심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쿠팡, '콜라보클럽' 론칭… 팬덤굿즈 시장 공략

내일 팝업 오픈… '쯔토리' 신상품 공개

쿠팡이 캐릭터·K팝·인플루언서 협업 상품을 모은 전문관 '쿠팡콜라보클럽'을 새로 선보인다. 온라인 전문관 운영과 함께 서울 홍대에서 팝업스토어를 열고 팬덤 굿즈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쿠팡은 '쿠팡콜라보클럽'을 론칭한다고 27일 밝혔다. 전문관에서는 글로벌 캐릭터, K-POP 아티스트, 인플루언서와 협업한 문구·완구·액세서리 등 상품을 판매한다.

오프라인 행사도 진행한다. 쿠팡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서울 마포구 복합문화공간 'ㅎㄷ카페'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현장에는 포토존과 전시존 등 체험 공간이 마련되며, 전시 상품은 QR코드를 통해 쿠팡 앱에서 구매할 수 있다.

먹방 크리에이터 쯔양의 캐릭터 브랜드 '쯔토리' 신상품도 이번 행사에서 처음 공개된다. 쯔양은 다음 달 1일 현장을 방문해 쿠팡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방문객 대상 이벤트도 마련됐다. 전시 상품 QR코드를 스캔해 장바구니에 담으면 랜덤 경품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으며, 포켓몬 손목시계와 충전기 등이 제공된다.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하고 인증 사진을 올린 방문객에게는 에코백과 키링을 증정한다.

/신원선 기자

롯데웰푸드

'마가렛트 호두과자맛' 출시

롯데웰푸드가 디저트 브랜드 복호두와 손잡고 시즌 한정 신제품 '마가렛트 호두과자맛(사진)'을 선보인다.

롯데웰푸드는 27일 '마가렛트 호두과자맛'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품은 전국 유명 디저트 브랜드와 협업하는 '마가렛트가 찾아가는 카페 여행(마카행)' 프로젝트의 첫 번째 제품이다. 최근 SNS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디저트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카페 및 디저트 브랜드의 대표 메뉴를 마가렛트 스타일로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기획됐다.

신제품은 복호두의 대표 메뉴인 '팥 호두과자' 맛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마가렛트 특유의 부드러운 식감에 팥앙금과 호두과자 풍미를 더해 디저트형 쿠키 콘셉트로 완성했다. 패키지에는 복호두 캐릭터와 브랜드 색상을 적용해 협업 제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제품은 176g(8봉입), 352g(16봉입) 두 가지 규격으로 출시되며 시즌 한정으로 운영된다.

/신원선 기자

한일 오가노이드 기업 협력… 장 재생치료제 상용화 속도

오가노이드사이언스 협약 체결
日 류이치 오카모토 교수 연구팀
'ATORM-C' 조기 기술이전 추진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이경진 최고기술책임자(CTO·상무)와 일본 도쿄 과학대학(IST) 류이치 오카모토 교수(오른쪽 세번째, 네번째)가 '장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및 임상 번역 연구' 분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오가노이드 선도 기업들이 협업을 통해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의 글로벌 상용화에 속도를 낸다. 장 재생치료제의 임상 경험을 가진 기업들의 만남으로 치료제 승인 가능성은 물론, 오가노이드 기술 고도화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국내 오가노이드 기반 재생치료제 전문기업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일본 도쿄과학대학(IST) 류이치 오카모토(Ryuichi Okamoto) 교수 연구팀과 '장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및 임상 번역 연구' 분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단순 학술교류가 아니라 오가노이드사이언스의 핵심 파이프라인인 오가노이드 기반 장 재생치료제 '아톰(ATORM)-C'의 일본 상용화·기술이전 일정을 앞당기는 실행형 협약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오카모토 교수팀은 2012년 네이처지에 장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의 임상 적용 가능성을 세계 최초로 제시했고, 2022년에는 세계 최초로 환자에게 장 오가노이드를 이식하는 데 성공한, 사실상 이 분야 임상을 정의한 연구 그룹이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측은 이번 협약의 의미가 임상 개념을 처음 만든 측과 규제 승인 치료제를 보유한 측의 결합이라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GMP 생산·품질관리(CMC)·임상운영 역량을 내재화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ATORM-C의 임상시험계획(IND) 승인을 이미 확보한 국내 유일의 장 오가노이드 임상 단계 기업이다.

이번 협업으로 일본 진입 시 현지 임상·규제 리스크를 동시에 낮추는 동시에, ATORM-C 기술의 과학적 신뢰도를 글로벌 학계 기준으로 검증받는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이번 협업을 통해 일본 최대 의료연구 지원기관인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AMED)와 연구개발 과제를 공동 신청·수주해 임상 데이터를 축적할 계획이다. AMED는 현지 연구그룹과의 공동 과제 형태로 외국 기업의 참여가 가능해, 공동 수주 시 일본 임상 비용을 정부 펀딩과 분담하면서 규제 당국과의 접점을 확보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또한 일본 재생의료 특별법인 재생의료 등의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ASRM)의 신속 인허가 트랙을 활용하면 기존 임상시험 대비 빠른 시장 진입 및 상용화가 가능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MED 과제로 쌓은 데이터가 ASRM 신속 승인 요건과 맞물릴 경우 일본 내 사업화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현지에서 축적되는 임상 데이터와 세계 최초 임상팀과의 공동연구 이력은 글로벌 제약사를 대상으로 한 기술이전 협상에서 강력한 협상 카드로 작동한다. 양 기관은 임상 적응증 확대를 넘어 차세대 오가노이드 기술 고도화와 GMP 생산 플랫폼 확장, 글로벌 공동연구 네트워크 구축까지 협업 범위를 넓힐 예정이어서, 단일 품목을 넘어선 플랫폼 확장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경진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임상 적용 가능성을 가장 먼저 제시한 연구 그룹과 실제 임상단계 치료제를 보유한 기업의 협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며 "AMED 자금 확보와 ASRM 트랙 활용을 통해 ATORM-C의 일본 시장 진출과 기술이전을 실질적으로 앞당기고, 글로벌 임상 확장의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한미약품, 근육 증가형 비만치료제 개발

내달 美당뇨병학회서 연구결과 발표
세계 최초 '펩타이드 기반 물질' 설계

'뉴 한미' /한미약품그룹

한미약품이 근육 증가는 물론, 근 기능을 개선하는 혁신적인 비만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오는 6월 5~8일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열리는 '2026 미국당뇨병학회'에서 차세대 근육 증진 치료제 'HM500197', 신개념 비만 치료제 'HM17321' 등에 대한 8건의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처음 공개되는 'HM500197'은 세계 최초로 '펩타이드 기반 물질'로 설계된 비만 파이프라인이다. 기존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계열 비만 치료제의 최대 한계점으로 꼽히는 '근 손실'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둔다.

실제로 GLP-1 비만 치료제는 우수한 체중 감량 효과를 입증했으나, 감량 체중의 약 20~40%가 제지방(지방을 제외한 뼈, 근육, 수분 등) 감소와 연관된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보고되어 왔다. 특히 골격근의 과도한 감소는 기초대사량 저하와 근력 약화로 이어져 장기적인 체중 유지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또 HM500197에는 한미약품이 자체 구축한 최첨단 인공지능(AI) 및 구조 모델링 플랫폼 'HARP' 기술도 집약됐다.

'HM17321'는 세계 첫 근육 증가형 혁신 비만치료제 후보물질이다. 스트레스 반응 조절에 관여하는 코르티코트로핀 방출 인자2(CRF2) 수용체를 표적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11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임상1상시험계획서를 허가받아 순조로운 임상 단계를 밟고 있다.

한미약품 최인영 미래성장부문장은 "한미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중 독자 개발 비만신약 상용화 시점이 제일 앞선 것은 물론, 오랜 기간 대사질환 분야에서 쌓아온 독보적 R&D 역량을 토대로 '미래의 비만 신약'을 창출해 가고 있다"며 "전 세계 비만 환자들이 체지방은 효과적으로 감량하면서도 오히려 근육은 강화하는 '건강한 체중 감량'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글로벌 혁신신약 개발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셀트리온, ADC·다중항체 신약 포폴 강화

'사이언스&이노베이션 데이' 개최

셀트리온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호텔에서 '셀트리온 사이언스&이노베이션 데이 2026(CSID)'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여는 글로벌 신약'을 주제로 열린 이번 CSID는 셀트리온의 신약 청사진과 차별화된 개발 역량을 시장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셀트리온과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협력하고 있는 기업들의 특화된 경쟁력도 소개됐다. 특히 지난해 행사에서는 참여 대상이 국내외 애널리스트 등 증권가에 국한됐으나, 올해부터는 기관 투자자, 벤처 캐피탈(VC), 리서치 기관 등으로 청중을 확대했다.

이날 행사에서 셀트리온 권기성 연구개발부문장은 '셀트리온 신약 비전'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셀트리온의 차세대 항체 개발 전략과 기술적 차별성, 사업화 방향을 소개했다. 또 셀트리온은 자체적으로 축적한 개발 역량 위에 외부 파트너사의 혁신 기술을 결합하고, 경쟁력 있는 신약개발 모델을 구축해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셀트리온 장소용 신규사업담당장은 신약 개발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는 셀트리온의 오픈 이노베이션 로드맵과 다양한 협력 사례를 소개했다. 현재 셀트리온은 전국 각지에서 공공기관, 대학 등과 총 6개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중국 등 글로벌 시장으로도 프로그램을 지속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서진석 대표가 연사로 나서 신약 포트폴리오를 전반적으로 소개하고, 오픈 이노베이션 실행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서 대표는 현재 셀트리온이 항체약물접합체(ADC), 다중항체, 신규항체·융합 단백질, 펩타이드, 마이크로바이옴 등 다양한 모달리티(치료적 접근법) 영역에서 글로벌 미충족 수요에 맞는 신약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셀트리온의 바이오 사업 전주기 역량에 기반해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글로벌 신약 성공 사례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사에 참석한 IBK투자증권 정이수 연구원은 "셀트리온이 추진 중인 신약 파이프라인의 개발 현황과 기술적 차별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특히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확보한 기술과 파이프라인의 가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뜻깊었다"고 전했다. /이세경 기자

"근로자 1명만 있어도 건강보험 의무"

국민건보공단, 가입 강조기간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가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가입 의무 제도를 확산한다.

국민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는 오는 6월 30일까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전 사업장의 성실 신고 문화 정착에 중점을 둔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공단에 사업장 적용 신고를 마쳐야 한다. 상용근로자를 비롯해 일용근로자(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 단시간 근로자(1개월 간 60시간 이상 근로), 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 등이 모두 신고 대상 근로자에 포함된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가입 누락이 발생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직권 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이번 기회를 통해 해당 제도를 집중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이 자진해 신고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대웅제약, '엔블로' 멕시코 품목허가

중남미 전역 순차 발매

대웅제약은 멕시코에서 '엔블로 0.3mg(성분명: 이나보글리플로진·사진)'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엔블로는 대웅제약이 개발한 국내 최초 나트륨 포도당 공동수송체-2(SGLT-2) 억제제 계열의 제2형 당뇨병 치료제다. 기존 SGLT-2 억제제의 30분의 1을 밑도는 0.3mg의 저용량으로 뛰어난 약효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신장에서 포도당 재흡수를 억제하고 소변으로 배출시켜 혈당을 낮춘다. 혈당 강하는 물론 신장 질환, 심부전 등에서도 치료점 이점을 갖췄다.

이번 허가를 계기로 대웅제약은 중남미 지역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현재 멕시코를 포함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도미니카 공화국, 파나마 등 총 7개 국가에서 품목허가를 확보했다.

대웅제약은 중남미 내 당뇨병 환자 증가세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국제당뇨병연맹(IDF) 보고서에 따르면, 멕시코를 포함한 중남미 지역은 급격한 도시화, 초가공식품 중심의 고열량 식습관 변화, 비만 인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당뇨병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대웅제약은 중남미 현지 파트너사 '아르세라(구(舊) 목사8)'와 지속 협력한다. 아르세라가 보유한 중남미 전역의 유통망을 활용해 올해부터 엔블로 발매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박성수 대웅제약 대표는 "이번 멕시코 허가는 글로벌 파트너사와 함께 공들여 온 중남미 시장 확대 전략이 실제 성과로 증명된 첫 분기점"이라며 "향후 중남미 전역으로 엔블로 공급을 확대해 글로벌 당뇨병 시장에서 국산 신약 엔블로의 영향력을 빠르게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 아, 오늘이 내 인생의 클라이맥스구나. ”
뮤 직 드 라 마
불편한 편의점2
Always
2026.4.1 - OPEN RUN
후암씨어터
원작 김호연 불편한 편의점2 (나무옆의자 2022) | 총괄 프로듀서 황기현 | 각색·작사 박예슬 | 연출 승운 | 작곡·음악감독 서진영 | 무대디자인 주미영
조명디자인 정필균 | 음향디자인 안형록 | 무대제작 드림아트컴퍼니(주) | 제작PD 박민서
주최·주관 극단 지우 | 기획 (주)지우컴퍼니 (주)제이엘컬처 | 후원 나무옆의자 출판사 waterfallstory | 예매처 NOL ticket | 문의 02-332-4902

기보-OpenAI, AI 생태계 활성화 '맞손'

기술보증기금은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OpenAI와 'AI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오른쪽)이 제이슨 권(Jason Kwon) 오픈AI 최고전략책임자(CSO)와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보

롯데, 'mom 편한 가족상' 시상식 열어

롯데는 26일 서울 송파구 시그니엘 서울에서 보건복지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제1회 롯데 mom(맘) 편한 가족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는 노준형 롯데지주 대표이사, 임성복 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실장,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부의장,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황영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회장 등이 참석했다. /롯데

KGC-농진청, K-인삼·농생명자원 사업화 확대

국내 건강기능식품 업계 1위 기업인 KGC가 농촌진흥청과 손잡고 K-인삼과 농생명자원의 사업화 확대에 나선다. 양측은 신규 기능성 소재 발굴부터 건강기능식품 개발, 생산기술 고도화까지 공동 연구 체계를 구축해 국내 농생명자원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KGC

GS건설, 예비 안전보건 전문가 대상 직무체험

GS건설은 지난 22일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안전혁신학교에서 경복대학교 안전보건학과 재학생 22명을 초청해 건설업 안전보건 직무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교육부 주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GS건설

우리은행, '대장-홍대 광역철도' 금융약정식

우리은행은 총 1조9131억원 규모로 진행되는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의 대표 주선기관으로 금융약정식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이명수 우리은행 IB그룹장(왼쪽 다섯번째) 및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현대차, '아이오닉 5·9'로 경남도 산불 피해지역 복구

산림청-트리플래닛과 '맞손'
3년간 숲 조성 등 산림 복원 추진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기술을 활용한 환경 복원에 속도를 높인다.

현대차는 지난 26일 서울 동대문구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산림청, 트리플래닛과 '산림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친환경 사회공헌 사업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현대차가 2016년부터 운영 중인 숲 조성 사회공헌 프로젝트 '아이오닉 포레스트'의 일환이다. 현대차는 전기차 기술, 글로벌 브랜드, 환경 복원을 하나로 엮은 CSV 프로젝트 '아이오닉 포레스트'를 추진하고 있다. 2016년 매립지 숲 조성에서 출발해 13개국에 100만 그루 식재를 달성했고, 드론·데이터 기반 복원과 글로벌 캠페인으로 진화하고 있다.

현대차 '아이오닉 5 모니터링 드론 스테이션' 차량. /현대차

현대차와 산림청, 트리플래닛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올해부터 3년간 경산남도 산불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숲 조성 등의 산림 복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전기차 기반 드론 통합 설루션인 '아이오닉 드론 스테이션'을 통해 씨드볼(황토와 함께 공 형태로 빚은 친환경 씨앗) 600㎏를 안동·산청·울진 등에 투하·식재하고, 산림 생장 과정을 모니터링한다.

아이오닉 드론 스테이션은 현대차 아이오닉5·9를 기반으로 제작된 산림 특장차량이다. 내부에 구축된 드론 관제 시스템으로 접근이 어려운 산림지역에 식재가 가능하고, 외부로 전력을 제공하는 V2L(Vehicle to Load) 기능을 통해 드론을 운용할 수 있다.

현대차는 2023년 '아이오닉5 모니터링 드론 스테이션'을 처음 도입한 데 이어 지난해 '아이오닉 9 씨드볼 드론 스테이션'을 추가하며 스마트 산림 생태 복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현대차는 산불 피해지역 복원 활동과 함께 ▲ICT 기반 산림 관리 ▲스마트 산림 생태 복원 ▲밀원 수림 조성 및 지역 상생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대형 산불 피해 예방이라는 과제에 맞춰 첨단 드론 기술과 친환경 차량을 접목한 새로운 산림 복원 설루션으로 지속 가능한 산림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삼성전자서비스, 콜센터 업계 최고 평가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
고객감동·우수콜센터 동시 선정

삼성전자서비스가 인공지능(AI) 기반 상담 서비스와 고객 맞춤형 지원을 앞세워 국내 콜센터 서비스 품질 평가에서 업계 최장 기록을 이어갔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상담 고도화와 맞춤형 고객 지원 강화가 장기 연속 수상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삼성전자서비스는 '2026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 콜센터 부문에서 가전제품 서비스업계 최초이자 유일하게 '고객감동콜센터'와 '한국의 우수콜센터'에 동시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고객감동콜센터'는 2023년부터 4년 연속, '한국의 우수콜센터'는 2010년부터 17년 연속 선정된 대기록이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는 전문 평가위원이 기업별 콜센터의 서비스 품질을 모니터링 조사하여 고객이 체감하는 만족도를 발표하는 제도이다.

삼성전자서비스 상담사가 2026 KSQI 기념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서비스는 서비스 품질 영역에서 업계 최고 평가를 받은 데 이어 공감 영역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둬 '고객감동콜센터'와 '한국의 우수콜센터'에 모두 선정됐다. /차현정 기자 hyeon@

메트로미디어-따능, 언론분야서 AI 활용

AI 기반 언론 콘텐츠 제작 모델 구축

〈메트로신문〉과 〈메트로경제신문〉을 발행하는 ㈜메트로미디어(대표이사 이장규)와 인공지능(AI) 전문업체 따능(대표 최창현)은 AI 콘텐츠 제작 플랫폼 '따능'의 언론 분야 활용 및 상호 발전을 위하여 27일 서울 종로구 옥인동 메트로미디어 본사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따능은 AI 콘텐츠 제작 플랫폼 '따능 AI'를 언론 현장에 제공함으로써 실사용 기반의 서비스 고도화 및 브랜드 홍보 효과를 얻고, ㈜메트로미디어는 '따능AI'를 활용해 기사 내 AI 이미지·영상 콘텐츠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작함으로써 언론 콘텐츠의 품질 향상과 현업 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계획이다.

메트로미디어 이장규 대표이사(오른쪽)와 따능 이혜경 이사가 27일 서울 종로구 옥인동 메트로미디어 본사에서 업무 협약을 맺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메트로미디어

양 기관은 협력을 통해 AI 기반 언론 콘텐츠 제작의 새로운 모델을 함께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규춘 기자 ch9720@

GM '우수 협력사'에 국내기업 20곳 선정

현대모비스·현대글로비스 등 수상
GM 수출 부품규모 年 1.4조 달해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미국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 제너럴모터스(GM)의 연례 협력사 평가에서 전체 수상사의 약 20%를 차지하는 등 뛰어난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입증했다.

GM은 지난 19일(현지시각)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열린 '2025 올해의 우수 협력사' 시상식에서 전 세계 협력사 103개사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가운데 국내 협력사는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HL만도, 남선알미늄 자동차사업부문 등 20개사로 집계됐다. 국내 수상사는 2005년 5개사에서 2025년 20개사로 확대됐으며, 최근 3년 연속 전체 수상사의 약 20%를 차지했다.

GM의 올해의 우수 협력사는 전 세계 6000여개 협력사 가운데 성과와 혁신, 품질, 지속 가능성, 실행력, 회복력, 수익성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된다.

국내 협력사의 글로벌 공급망 기여도도 커지고 있다. 국내 협력사들이 GM 글로벌 네트워크로 직접 수출하는 부품 규모는 연간 약 1조4000억원에 달한다. 한국GM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266개 직거래 부품 협력사와 1400개 이상의 간접·물류 협력사를 통해 약 19조원 규모의 부품을 구매했다.

방선일 한국GM 구매 부문 부사장은 "국내 협력사들이 GM의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꾸준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국내 기업의 뛰어난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보여준다"며 "한국GM은 부품과 물류, 생산 역량을 세계 시장과 연결하는 통합 플랫폼으로서 앞으로도 국내 협력사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한국GM은 2018년 전북 군산공장 폐쇄하고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한 지 8년 만에 첫 배당에 나서면서 경영 정상화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성운 기자

현대모비스, 장애인 표준사업장 출범

'모아빛' 운영… 지분 100% 출자

현대모비스가 장애인 근로자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는 표준사업장을 출범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와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현대모비스는 경기 의왕연구소에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모아빛'을 본격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모아빛 설립을 위해 지분 100%를 직접 출자했다. 단순한 법적 의무 이행을 넘어 체계적인 직무 교육·경력 개발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를 전문 인재로 육성하는 새로운 형태의 일터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모아빛은 현대모비스의 사업 방향과 연계된 자동차 특화 직무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첫 사업으로 스팀세차를 선정했으며 마북·의왕연구소 및 창원공장에 전용 세차장을 구축하고 발달장애인 근로자 60명을 채용했다.

기존 외부 위탁 방식이었던 번역 업무를 모아빛 주요 사업으로 전환해 장애인 고용 기반을 넓혔으며 위탁 운영하던 장애인 음악단도 모아빛 소속으로 직접 고용해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한다.

더불어 근무 편의를 위한 환경 조성에도 힘썼다. 전용 셔틀버스와 재택근무 등 유연한 근무 형태를 도입했다. 장애 자녀 학자금, 종합건강검진, 정신건강 케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정서적 안정까지 관리할 계획이다.

모아빛은 올해까지 근로자 100명 이상을 채용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인 사 ◆**통일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육개발과장 박소영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스마트교육팀장 진충모 ◆**iM증권**◇전무△경영전략부문장 김주욱 ◇상무보 △경영지원본부장 정호철 ◇실장 △영남영업실장 정성원

부 음 ▲김영옥씨 별세, 이종원씨 배우자상, 이건수·보경·문경·명아씨 모친상, 김형주씨 시모상, 김용서·최원복·이석원(신한자산운용 대표이사)씨 장모상 = 27일 오전, 경북대병원장례식장 3호실, 발인 29일. 053-200-6464

서울대, 성장하는 학생 찾는다

지 상 범의

입시 토크

서울대학교가 공개한 2027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가이드북은 단순한 입시 안내서를 넘어 변화하는 대한민국 교육의 방향성을 보여 주는 문서에 가깝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확대, 내신 5등급제 도입 등 대입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도 서울대는 '학교 교육 중심의 정성평가'라는 본질적 가치를 더욱 강조했다. 특히 이번 안내서가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분명하다. 서울대는 이미 완성된 결과물을 가진 학생보다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과 학문적 잠재력을 지닌 학생을 찾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은 여전히 학생부종합전형을 '스펙 경쟁'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서울대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화려한 활동의 개수가 아니라 활동의 맥락과 성장 과정이다. 단순히 무엇을 했는가보다 왜 관심을 가졌고 어떤 고민과 탐구를 통해 발전했는지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실제로 안내서에서는 학생을 하나의 점수나 등급으로 환원하지 않고 학교생활 전반 속 변화와 성장을 입체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철학이 드러난다.

2027학년도 전형은 지역균형전형, 일반전형, 기회균형특별전형 등으로 운영된다. 지역균형전형은 교육환경 속에서 꾸준히 성장한 학생의 잠재력을 평가하며, 일반전형은 모집단위와 관련된 학업 역량과 탐구 능력을 심층적으로 본다. 기회균형전형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 의지를 잃지 않고 성장한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전형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맥락 중심 평가'다. 서울대는 단순 결과가 아니라 학생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선택을 하며 성장했는지를 본다.

특히 학생들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학업역량 평가 방식이다. 서울대는 내신 등급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수강자 수, 과목 평균, 표준편차, 선택 과목의 난이도, 성적 변화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따라서 어려운 과목이나 소인수 과목에 도전한 경험은 비록 등급이 다소 낮더라도 긍정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앞으로의 대입에서 '안전한 선택'만 반복하는 전략이 한계를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학업태도 역시 중요한 평가 요소다. 서울대는 자기주도적 학습 과정에서 드러나는 지적 호기심과 탐구 의지를 높게 평가한다. 발표 수업을 위해 자료를 스스로 탐색하거나 실험 과정에서 문제 해결 방안을 고민하는 경험, 독서와 토론을 통해 사고를 확장하는 태도 등이 모두 의미 있는 평가 자료가 된다.

학업 외 소양 평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울대는 리더십을 단순히 '임원 경험'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친구들과 협력하며 갈등을 조율했던 경험, 공동체 안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한 과정, 배려와 나눔을 실천한 태도 등을 중요하게 본다. 즉, 보여주기식 리더십보다 공동체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핵심이다.

다만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계해야 할 부분도 있다. 최근 일부 학생들은 세특 문구를 인위적으로 설계하거나 전공과 억지로 연결된 활동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서울대는 활동 간의 연결성과 진정성을 매우 중요하게 본다. 단기간에 만들어낸 스펙은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기록으로 보일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관심 분야를 꾸준히 탐구하며 성장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결국 2027 서울대 학생부종합전형의 핵심은 단순하다. 결과 중심 경쟁에서 벗어나 학교 안에서 어떻게 배우고, 고민하고, 성장했는가를 보여주는 학생이 유리하다는 점이다. 서울대는 지금도 스스로 질문하고 실패 속에서도 성장할 줄 아는 학생을 기다리고 있다.

/JSB진로진학연구소장

성과급 논란에 가려진 상생의 책임

기자 수첩

유 혜 온 〈산업부〉

최근 산업계를 달구고 있는 성과급 논란이 기업의 담장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 전반의 화두로 번지고 있다. "일한 만큼 체감할 수 있는 보상을 달라"는 노동계의 목소리와 "미래 투자와 글로벌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는 경영진의 비명이 정면충돌하는 모양새다.

삼성전자 노사는 총파업 개시 90분 전 DS(반도체) 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신설과 자사주 지급 확대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조가 요구한 '영업이익 15% 성과급'이 그대로 반영되진 않았지만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에 특별경영성과급 10.5%를 추가하면서 성과와 이익에 연동된 보상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이를 계기로 산업 현장의 성과급 요구도 더 구체적이고 과감해지는 분위기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영업이익 20%와 3000만원 성과급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고, LG유플러스·현대차·HD현대중공업 노조는 영업이익 30%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카카오 노조도 영업이익 15%를 요구했으며, 한화오션 노조도 성과급 지급 방식 개선을 요구안에 담을 방침이다.

자동차 업계의 우려가 특히 크다. 올해 4월까지 자동차 수출액은 중동 전쟁 여파와 현지 생산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1.7% 줄어든 234억800만달러에 그쳤다. 본교섭 결렬로 파업이 현실화하면 생산 차질과 수출 감소는 물론 협력업체까지 연쇄 타격이 불가피하다.

조선업계도 사정은 복잡하다.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원청과 하청이 성과를 어떻게 나눌지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조선업처럼 수주부터 인도까지 수년이 걸리는 장기 사이클 산업에서 단기 실적 기준으로 성과를 고정 배분하면 경영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지적이다. 중국과의 수주 경쟁, 친환경 선박 전환, 스마트 조선소 구축 등 대규모 미래 투자 부담도 적지 않다.

노동계의 요구에는 오랜 기간 누적된 현장의 불만과 보상에 대한 갈증이 담겨 있다. 반대로 기업들 역시 당장의 이익을 쪼개 쓰기엔 글로벌 생존 게임의 벽이 너무나 높다.

성과급 갈등이 씁쓸한 이유는 우리 사회의 또 다른 극단화와 이기주의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힘 있는 대기업 노조가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앞세워 '내 몫 챙기기'에만 몰두할 경우 그 피해는 국민 경제로 전가될 수 있다.

지금 산업계에 필요한 것은 노동권의 가치를 증명할 연대 의식과 성장의 과실을 사회로 넓히는 상생의 책임감이다. 힘의 논리 끝에 남는 것은 파국뿐이라는 점을 노사 모두 되새겨야 한다.

/dhaledhale@metroseoul.co.kr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4		6	7					2
	3	9		5	6		4	
			1				9	3
	1					3		4
	7						5	
5		3					6	
9	8				7			
	4		6	2		7	1	
7					1	6		5

6	3				9		7	5
9			7					4
		1		9	5	8		
1		6					4	
		7				6		
	4					9		1
		3	9	4		5		
7					6			3
3	5		6				9	8

문제출제: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4	5	6	7	1	3	9	8	2
2	3	9	8	5	6	1	4	7
8	6	7	1	4	2	5	9	3
6	1	2	9	8	5	3	7	4
1	7	4	3	6	8	2	5	9
5	9	3	2	7	4	8	6	1
9	8	1	5	3	7	4	2	6
3	4	5	6	2	9	7	1	8
7	2	8	4	9	1	6	3	5

6	3	8	4	1	9	2	7	5
9	2	5	7	6	1	3	8	4
4	7	1	2	9	5	8	3	6
1	8	6	5	2	3	7	4	9
8	9	7	1	3	4	6	5	2
5	4	2	3	8	7	9	6	1
2	6	3	9	4	8	5	1	7
7	1	9	8	5	6	4	2	3
3	5	4	6	7	2	1	9	8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28일 (음 4월 12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계획을 꼼꼼히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60년생** 수렁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렵겠습니다. **72년생** 정신을 더욱 바짝 차리세요. **84년생** 스트레스는 받는 즉시 바로 푸는 것이 좋습니다.

49년생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면 크게 실패할 수 있습니다. **61년생** 여행은 되도록 떠나지 마세요. **73년생** 지금 시기가 아직 좋지 않습니다. **85년생** 큰 금전거래는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50년생 자신의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할 때입니다. **62년생** 어려운 일은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74년생**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계속 시달리게 됩니다. **86년생** 주위의 유혹을 잘 이겨야 가능합니다.

51년생 단시일 내에 이루려는 꿈은 불길합니다. **63년생** 머지않아 반드시 길하게 됩니다. **75년생** 순리에 차분히 따르도록 하세요. **87년생** 눈앞에 보이는 이윤에 성급히 뛰어들려 하지 마세요.

52년생 시야를 더 넓게 가지세요. **64년생**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도록 하세요. **76년생** 반드시 바라던 꿈이 이루어집니다. **88년생** 말과 행동의 구설수를 조심하세요.

53년생 좋은 경사가 있어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65년생** 긴장이 풀려 몸을 상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77년생** 어려울 듯하면서도 점차 좋은 방향으로 갑니다. **89년생** 모든것에서 거침없이 승승장구합니다.

54년생 뜻대로 자신 있게 밀고 나가세요. **66년생** 시기적으로 아주 좋은 운을 타고 있습니다. **78년생**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은 거의 함께 합니다. **90년생** 만인이 그 공로를 치하하며 받들게 됩니다.

55년생 여태껏 치성을 드린 보람이 크게 있겠습니다. **67년생** 사업이 점차 번창하게 됩니다. **79년생** 노력을 닦아온 결실이 마침내 맺어질 때입니다. **91년생** 배우는데 더욱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56년생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68년생** 서둘러서 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80년생** 수양을 꾸준히 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92년생** 조급해 말고 차분히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57년생 새로운 마음가짐과 자세로 일에 임하게 됩니다. **69년생** 하늘의 뜻이 곧 나의 뜻이니 어찌 이루지 못하리요. **81년생** 목표가 높아 올라가는데 다소 힘이듭니다. **93년생** 길흉화복이 함께합니다.

58년생 큰 소원도 능히 성취할 것입니다. **70년생** 소중한 시간을 낭비 해서는 안됩니다. **82년생** 좋다면 망설이지 말고 무조건 밀고 나가세요. **94년생** 여행 도중 꿈속에 그리던 상대를 만나게 됩니다.

59년생 매사에 과감한 추진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71년생** 조금만 더 부지런히 움직이세요. **83년생** 생각도 못했던 일로 크게 즐거워집니다. **95년생** 면접운이 매우 좋게 작용합니다.

김상회의 四季

복권 로망

복권 얘기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복권의 유래가 궁금해진다. 자료를 찾아보니 원래 로또는 운명이라는 뜻의 이탈리아어 '로토'(Lotto)이며, 여기에서 파생되어 복권을 의미하는 영어 '로터리'(Lottery)의 어원이 되었다고 한다. 가끔 세계적으로도 화제가 되듯 사상 최대금액의 복권 당첨자에 대하여 해외토픽 뉴스에 나서 전세계인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하는데, 세계 경제 1위를 구가하는 미국의 로또에 해당하는 것은 '파워볼'과 '메가밀리언'이라는 것이 있다. 미국 복권은 21세 미만은 구입 및 당첨금 수령이 불가하다는데 우리나라는 만 19세 미만은 복권 구매가 금지되어 있다. 유럽 전역에서는 '유로밀리언'이 제일 유명하단다. 당첨자 중에 인상적인 것은, 2012년에 미국 미주리 주의 작은 마을에서 사는 마크 힐이라는 남성이 파워볼에 당첨돼 한화로 치면 약 3400억원을 받았다.

지역 주민들은 곧 그가 마을을 떠날 거라는 예상을 했다. 복권 당첨자들은 자신들의 당첨 사실을 숨기고 멀리 이사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는 마을을 떠나기는커녕 당첨금의 절반을 지역 공동체에 기부해 마을 소방서를 신축했다. 과거 그의 아버지가 두 번이나 쓰러졌을 때 지역 소방관들의 신속한 대처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는데, 보답으로 소방서 신축을 했고 부부가 다녔던 고등학교에 장학금, 마을에 놀이터와 하수처리장을 짓는 등 공익적 환원을 했다고 한다. 당첨금액이 크기는 했지만, 공짜로 생긴 일확천금이라 하더라도 의미 있게 쓴다면 분명 공덕을 짓는 일이다. 복권 당첨은 누구나의 로망이다 보니 한국 복권에 비해 당첨금액이 차원이 다른 미국 복권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에 구매대행 해주는 업체가 있는데 불법이라고 한다. 푼돈이라도 낭비하시지 않기를….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 집 인	이 장 규	편집국장	윤 휘 종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2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24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서울교육 전환엔 한목소리 낸 보수 후보들… 단일화는 안갯속

서울교육감 선거 보수후보 기자회견
학력저하·교권약화 문제 제기
학생인권조례 대응엔 온도차
성소수자 교육 의제화도 이견
조전혁 "원샷 단일화 제안"
류수노·윤호상은 신중론

김영배 후보

류수노 후보

윤호상 후보

조전혁 후보

서울시교육감 보수 후보들은 진보 교육감 체제 아래 지난 12년간 이어진 서울교육을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교육정책 전반의 전환 필요성을 부각했다. 학생인권조례와 성소수자 교육 폐지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했지만, 추진 방식과 표현 수위에서는 온도차를 보였다. 보수 단일화 방식에서도 접근 차가 확인되면서, 단일화 성사 여부는 여전히 남은 변수로 떠올랐다.

27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시교육청 출입기자단이 마련한 기자회견에는 김영배·류수노·윤호상·조전혁 후보가 참석해 각자 교육 공약을 발표하고 서울교육 방향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수 후보들은 지난 12년 서울교육을 두고 학력 저하와 교권 약화, 사교육비 증가 문제를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조전혁 후보는 "서울교육이 특정 진영의 편향적 이념 실험장으로 변했다"며 학력 진단 강화, AI 교육 확대 등을 포함한 7대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류수노 후보는 혁신교육의 한계를 지적하며 교권 회복과 학교 본연의 역할 회복을 강조했고, 윤호상 후보는 학교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돌봄·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김영배 후보도 기초학력 회복과 인성교육 강화를 강조하며 서울교육의 방향 전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학생인권조례를 두고는 후보 간 입장이 갈렸다. 조 후보는 폐지를 공식화하며 '학생권리의무조례' 신설을 제안했다. 반면 류 후보는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돼야 한다며 "학생인권조례는 보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소수자·동성애 교육 문제를 둘러싼 시각 차도 드러났다. 특히 조 후보는 '퀴어·동성애 교육 추방'을 현수막 문구로 내걸며 해당 이슈를 전면에 부각했다. 조전혁 후보는 "사회적 합의가 없는 급진적 젠더·퀴어·동성애 교육이 학교에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며 "검증되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내용만 교육 콘텐츠로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배 후보도 관련 반대 입장을 내세우며 "올바른 성 인식을 바로잡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류 후보는 관련 공약에 대해 "특정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고 선을 그었다. 류 후보는 "왜 그런 공약을 내세우느냐는 이야기를 현장에서 들었다"며 "동성애 교육 반대 공약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후보도 성소수자·동성애 교육 문제를 교육감 선거의 핵심 의제로 삼는 데는 거리를 뒀다. 윤 후보는 "동성애 교육 추방이라는 개념으로는 교육을 바꿀 수 없다"며 "문제의식과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보수 진영의 최대 변수인 단일화 역시 여전히 안갯속이다. 조전혁 후보는 이날 "조건 없는 원샷 단일화"를 제안하며 류수노 후보를 상대로 제기했던 고발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배 후보 역시 단일화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류 후보는 기존 단일화 논의 과정에 대해 "실망을 넘어 절망"이라며 불신을 드러냈고, 윤 후보도 과거 단일화 과정에서 갈등을 겪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조 후보는 단일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네 명의 후보가 가슴을 열고 합의하는 게 중요하다"며 "합의한 대로 하면 무조건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경기도, 1호선 북부 배차간격 줄인다

경기도가 최대 42분에 달하는 경원선(1호선)의 배차간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주역~동두천역, 동두천역~연천역 구간에 각각 셔틀열차를 운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과 '경원선 셔틀열차 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1호선 의정부 북부 구간은 북쪽으로 갈수록 운행 횟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평일 기준 양주역의 배차간격은 평균 8분이고, 덕정·덕계역은 14분, 종착역인 연천역은 42분으로 간격이 벌어진다.

협약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는 기존에 확보된 6량 3편성의 전동차를 활용해 2027년부터 양주역에서 동두천역까지 17.8km 구간, 동두천역에서 연천역까지 20.2km 구간에 각각 셔틀열차 운행을 추진한다.

도는 관계기관 간 의견 조정 및 행정 지원을 총괄하며, 국가철도공단은 열차 회차 등을 위한 건넘선 신설과 승강장 안전문(PSD) 설치 등 시설 개량 사업을 즉시 추진하고, 양주시·동두천시·연천군은 열차 운행비용을 공동으로 분담하며,셔틀열차는 경원선 11개 역사에서 탑승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2024년 9월 경기도청원으로 1호선 배차간격 단축 요청 의견이 접수된 후 양주, 동두천, 연천, 한국철도공사 등과 경원선 셔틀 및 증차 운행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논의했다.

/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6월 모평 N수생 9만6931명 '역대 최다'

내달 4일 전국서 동시 실시
전체 지원자 48만8343명
통합수능 마지막해 변수 부각
사회탐구 선택 66.9% 급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에 졸업생 등 N수생이 역대 가장 많이 몰리면서 수능 경쟁 구도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사회탐구 선택 비중도 급증해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7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를 다음 달 4일 전국 2124개 고등학교와 564개 지정학원에서 동시에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모의평가 지원자는 총 48만8343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5229명 줄었다. 재학생은 39만1412명(80.2%)으로 전년 대비 2만2273명 감소한 반면, 졸업생 등 수험생은 9만6931명(19.8%)으로 7044명 늘었다.

평가원이 6월 모의평가 접수 통계를 공개한 2011학년도 이후 졸업생 접수 인원이 9만명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중 역시 역대 최고치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6월 모의평가는 재학생과 졸업생이 처음 동일 조건에서 경쟁하는 시험"이라며 "올해는 졸업생 유입이 크게 늘어난 만큼 재학생들이 자신의 위치를 판단할 때 졸업생 변수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7학년도가 통합수능 체제와 내신 9등급제가 적용되는 마지막 대입이라는 점도 N수생 증가 배경으로 꼽힌다.

탐구영역 선택 변화도 뚜렷했다. 사회·과학탐구 지원자 62만4723명 가운데 사회탐구 선택자는 41만7935명(66.9%), 과학탐구 선택자는 20만6788명(33.1%)이었다.

사회탐구 비중은 지난해 59.7%에서 7.2%포인트(p)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과학탐구는 같은 기간 40.3%에서 33.1%로 하락했다. 사회탐구 지원자는 1년 새 4만9941명 늘었고, 과학탐구 지원자는 4만1854명 감소했다.

특히 졸업생의 사회탐구 선택 비중은 지난해 55.5%에서 올해 65.1%로 9.6%p 늘었다.

/이현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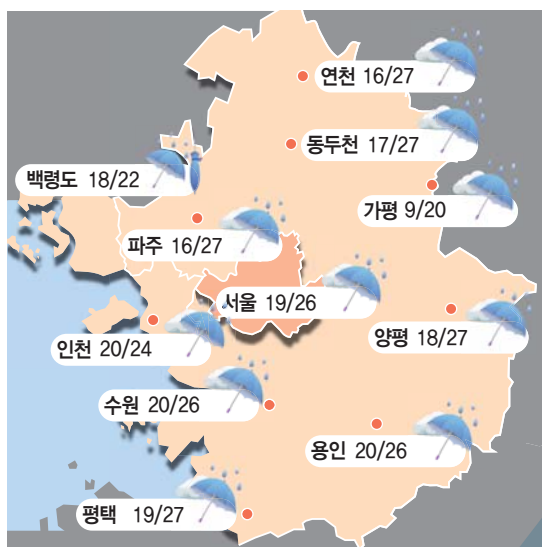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 05:14 | 해짐 / 19:45

5월
28일(木)
음력 : 4월 12일

수도권 날씨
19~26℃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하나금융 청라 본사 완공, 9월 입주 시작

국내 금융지주 첫 서울 밖 이전
10개 관계사 2200여명 순차 입주
데이터센터 포함 4000명 규모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청라에 건설 중인 하나금융그룹 본사 '그룹 헤드쿼터'가 지난 21일 완공되었으며, 오는 9월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국내 금융지주사 중 최초의 서울 외 본사 이전 사례로 약 4,000명의 대규모 금융 클러스터가 청라에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9월부터 연말까지 하나금융지주, 하나은행, 하나증권, 하나카드, 등 총 10개 관계사 2,200여 명을 비롯 기존 통합데이터센터 인력 합산 시 약 4,000여 명이 순차적으로 이전을 완료한다.

이로써 하나금융과 인천경제청은 청라 국제도시를 첨단 핀테크와 블록체인 기술이 복합된 은행·보험·투자 글로벌 디지털 금융 중심지로 조성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하나금융의 청라 이전은 2012년 인천시와 인천경제청,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5년에 걸친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 해왔다.

그 결과 1단계 2017년 통합데이터센터 2018년 2단계 하나글로벌캠퍼스가 금융 인프라의 기반을 다졌으며 그 결과 새로운 출발점인 3단계 그룹헤드쿼터가 5월 21일 준공됐다.

청라국제도시역에 위치한 그룹헤드쿼터는 지하 7층, 지상 15층 규모로 조성됐다. '디지털 혁신'을 상징하는 건축으로 특히 1층부터 15층까지 나선형으로 이어지는 약 1.1㎞의 보행자 램프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건물 외벽 전체는 독일에서 제작한 투명한 저철분 특수유리로 감쌌고 이는 그룹의 투명 경영과 사회적 가치 공유 건축에 형상화한 예술의 결과다.

/인천=이슬영 기자 sy1321@

메트로 한줄뉴스

▲경제 회복 노리는 이란, 충돌 속 美와 협상

▲구테흐스 "지구촌의 전쟁과 불신 , 위험한 국제법 위반행위 증가" 경고 /사진 뉴시스

▲"빈살만, '아브라함 협정' 압박 격분… 'NO' 100번은 말해"

▲트럼프, 팸 본디 전 법무장관 AI 자문위 발탁… 백악관 복귀

▲日 간사이 공항, 4월 中 관광객 61% 급감… 韓 21% 증가와 대비

▲인도서 열린 '한국어 퀴즈대회'… "한국어교육 지속 확대"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metroseoul.co.kr

metro® Life

제5920호 2026년 5월 28일 목요일

식음료업계
시그니처 메뉴로
고물가시대 돌파
L1

한국-일본
오가노이드 협업
상용화 속도
L2

풍미 가득 프리미엄 맥주 시대의 취향 꽉 채우다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롯데칠성음료 '클라우드'

맛 하나로 국내 '프리미엄 맥주' 개척
Korea+Cloud 결합해 만든 합성어
맥즙 발효원액·몰트 100% '차별화'
진한 바디감에 단맛·쓴맛 비율 맞춰
독일 정통 제조공법, 최고급 홉 사용
주류 트렌드·소비자 취향 맞춘 라인업
맥주 본연의 맛 구현한 논알코올 선봬
가볍고 청량감 넘치는 라이트 맥주도

대한민국 주류 시장은 그 어느 곳보다 트렌드 변화가 빠르고 소비자의 입맛이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수많은 수입 브랜드와 국산 라거 맥주들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는 시장에서 '프리미엄'이라는 단어를 온전히 브랜드의 정체성이자 자존심으로 삼은 맥주는 흔치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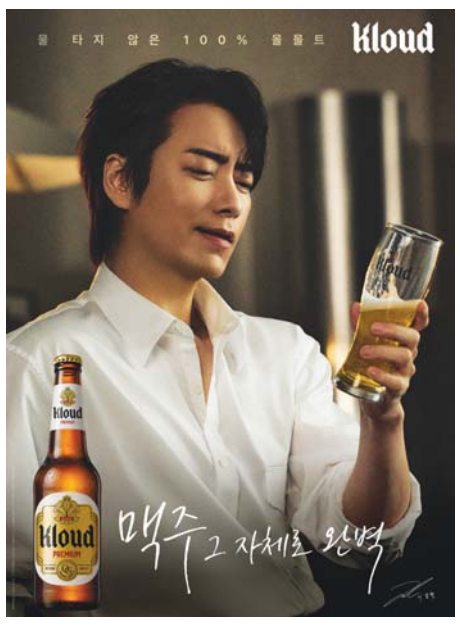
출시 초기부터 오직 '맛의 깊이와 본연의 가치' 하나만을 내세우며 국내 프리미엄 맥주 시장을 개척하고, 소비자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아온 주인공이 있다. 바로 롯데칠성음료의 간판 프리미엄 맥주 브랜드 '클라우드(Kloud)'다.

2014년 4월 첫 선을 보인 클라우드는 올해로 출시 12주년을 맞이하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프리미엄 맥주로 자리 잡았다.

출시 초부터 '맥즙 발효원액 100%, 몰트 100%'라는 파격적이고 차별화된 제품 특성을 앞세워 국산 맥주는 싱겁다는 편견을 깨고 국내 프리미엄 맥주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찬사를 받아왔다.

브랜드명인 'Kloud'는 한국을 대표하는 맥주가 되겠다는 의지를 담은 Korea의 'K'와, 잔을 채웠을 때 피어오르는 구름처럼 풍부한 거품을 상징하는 'Cloud'를 결합하여 만든 합성어다. 이름에 담긴 정체성처럼 클라우드는 지난 10여 년간 국내 주류 산업의 질적 성장을 견인해왔다.

그리고 2026년 5월, 클라우드가 안주하지 않고 또 한 번의 거대한 진화와 도약을 선언했다.



클라우드 포스터.

◆ '맥주'의 본질에 음용감을 더하다

이번 클라우드 리뉴얼의 가장 큰 핵심은 맥주 맛을 구성하는 다양한 미각적 요소 가운데 단맛과 쓴맛의 비율을 정교하게 다듬어 '맛의 밸런스'를 최적화한 데 있다.기존 클라우드가 자랑하던 진하고 깊은 풍미와 특유의 묵직한 바디감은 고스란히 유지하면서도, 잔당(殘糖)과 쓴맛을 세밀하게 조율하는 데 성공한 것.

클라우드는 정통 독일 프리미엄 맥주의 제조 방식인 '오리지널 그래비티(Original Gravity)' 공법을 고집스럽게 이어오고 있다. 이 공법은 맥주 발효원액에 추가로 물을 타서 희석하는 일반적인 맥주 제조 방식과 달리 발효 시 농도 그대로 제품을 만드는 공법이다. 맥주 본연의 깊은 맛을 추구하는 독일, 영국, 북유럽 등 유럽의 명품 프리미엄급 맥주 제조사들이 채택하는 전통 방식으로, 물을 섞지 않기 때문에 발효시킨 순간 고유의 진한 맛과 향, 그리고 알코올 도수(5도)가 고스란히 유지된다.

여기에 부재료인 옥수수나 전분 등을 일절 섞지 않고 엄선된 호주·캐나다산 프리미엄 맥아만을 사용한 100% 올 몰트(All-Malt) 맥주다. 부재료가 들어가지 않아 맥아 특유의 고소한 풍미와 입안을 꽉 채우는 묵직한 바디감이 살아있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맥주 특유의 쌉싸름한 향과 신선함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원료인 '홉(Hop)' 역시 최고급 독일산과 체코산을 사용한다. 특히 홉을 제조 과정 중 단 한 번만 넣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 다단계로 나누어 투여하는 '멀티 호핑 시스템(Multi Hopping System)'을 적용하여, 클라우드만의 깊고 진한 풍미와 아로마가 마지막 한 모금을 마실 때까지 오래도록 지속되도록 만들었다.

◆시각적 헤리티지의 진화

맛의 진화와 발맞추어 브랜드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디자인 역시 대대적인 옷을 갈아입었다. 롯데칠성음료는 이번 리뉴얼을 기점으로 골드(Gold)와 화이트(White) 톤의 색상이 세련되게 배색된 새로운 패키지 디자인을 전격 도입했다. 이번 패키지는 황금빛 맥주 원액의 깊은 맛과 그 위에 얹어지는 부드럽고 풍부한 구름 거품을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형상화한 것이 특징이다.

동시에 맥주 맛에 대한 신뢰와 역사를 상징하는 클라우드 브랜드 로고의 시인성을 한층 높여 브랜드가 가진 전통적인 헤리티지를 세련되고 현대적인 감각으로 강조했다. 클라우드는 소비자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과 음용 상황을 고려해 355ml, 470ml, 500ml 캔 제품과 330ml, 500ml 병 제품 등 다채로운 용량으로 패키지 라인업을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논알콜릭에서 크러시까지

클라우드는 오리지널 제품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급변하는 주류 트렌드와 다변화된 현대 소비자들의 취향, 그리고 웰빙을 중시하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적극 반영해 탄탄한 패밀리 브랜드 라인업을 완성했다. 가장 먼저 주목받은 것은 2025년 1월에 시장에 첫 선을 보인 '클라우드 논알콜릭'이다. 알코올 도수 1도 미만의 저칼로리 비알코올 맥주로 개발된 이 제품은 술을 잘 마시지 못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알코올 섭취를 제한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맥주 본연의 맛을 그대로 살린 '완성형 논알코올 맥주'라는 입소문을 타며 메가히트 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 4월에는 국내 최초로 오트(Oat) 생 라이트 맥주인 '클라우드 크러시'를 라인업에 전격 추가했다. 가볍고 산뜻하면서도 청량한 맛을 선호하는 젊은 세대의 입맛을 정조준한 제품이다. 이로써 묵직하고 깊은 풍미의 오리지널 '클라우드(알코올 도수 5도)', 트렌디하고 가벼운 '클라우드 크러시', 부담 없이 즐기는 '클라우드 논알콜릭'까지 이어지는 완벽한 '삼각 편대'를 구축하며 어떤 소비자의 취향이든 만족시킬 수 있는 철벽 라인업을 과시하게 됐다.

오트 생 라이트 맥주 '클라우드 크러시' 포스터.

2026 몽드 셀렉션 골드를 수상한 클라우드 논알콜릭. /롯데칠성음료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4만명 몰린 'K-EXPO USA'…한류, 생활문화로 확장

▲"자연은 생물·지질다양성 함께 이룬다"…국제 전문가들, KGA 주목 /사진 뉴시스

▲허준 산과 의서부터 최초 태교책까지…중앙도서관 고문헌 특별전

▲'허리 통증' 이정후 시동 건다, 30일 콜로라도전 복귀 준비

▲단비로 쉬어간 SSG, 선두 삼성 상대로 7연패 탈출 도전

▲'라스트댄스' 손흥민, FIFA 인터뷰서 "마지막 월드컵일 수도"

SK telecom

2026

1984

오래 쓰길 잘했다

이 한마디를 듣고 심어서

1984년부터 10년, 20년,
그리고 40여 년에 이르기까지
고객님과 함께한 오랜 시간 뒤에
SK텔레콤이 가장 듣고 싶은 말
"오래 쓰길 잘했다"

그 어떤 혁신적 비전보다
어느 최첨단 기술보다
고객님께 들려올 이 말 한마디가
저희가 향해야 할 답이고 길이기 때문입니다

곁을 내어 주신 오랜 시간이
장기고객님께 기분 좋은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그 한마디를 위해 달리겠습니다

다시 고객이라는 출발점에서

SK텔레콤 CEO
정 재 헌

T 장기고객 프로그램
데이터 혜택 제공 · 공연/전시 할인 · 단독 이벤트 초청 · T 멤버십 VIP 승급
* 혜택별 대상·조건·기간·제공 방식은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T 멤버십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0년 이상 장기고객님들을 위한 스페셜 케어
직접 찾아가는 방문 케어 · 장기고객 전문 상담 케어

국가고객만족도
이동전화서비스 부문
29년 연속 1위
NCSI